

目次

I. 序論	1
1. 연구 목적과 의의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범위 및 방법	7
II. ‘繫矩’에 대한 기초적 이해	9
1. 혈구지도의 出處	9
2. ‘혈구’의 의미	10
3. 조선시대 ‘繫矩圖’의 최초 출현	13
4. 중국의 「혈구도설」	16
III. 신응태의 「繫矩圖」 분석	22
1. 생애 및 학문관	22
2. 신응태 「대학도설」의 특징	23
3. 「繫矩圖」 분석	31
1) 1층	32
2) 2층	32
3) 3층	38
4. 소결	40
IV. 이형상의 「繫矩圖」 분석	42

1. 생애 및 학문관	42
2. 이형상 「대학도설」의 특징	43
3. 「絜矩圖」 분석	50
1) 구조적 특징	50
2) 강령의 분석	52
3) 종합 분석	59
4. 소결	61
V. 결론	63
참고문헌	65
부록	70
〈부록 1〉 조호익의 「혈구도」	70
〈부록 2〉 신응태의 「혈구도」	71
〈부록 3〉 이형상의 「혈구도」	72
〈부록 4〉 이태수의 「혈구도」	73
〈부록 5〉 한원진의 「남당전심장도」	74
〈부록 6〉 김근행의 「전심장도」	76
〈부록 7〉 백봉래의 「군자혈구지도」	78
〈부록 8〉 백봉래의 「삼인시신명혈구능불능지도」	79
〈부록 9〉 권 병의 「대학전심장호운봉분절변」	80
〈부록 10〉 김수민의 「혈구도」	81
〈부록 11〉 박경가의 「전심장혈구도」	82
Abstract	84

표 목 차

<표 1> 신응태의 「혈구도」 2층표	33
<표 2> 운봉 호씨 단락표	39
<표 3> 이형상의 「혈구도」 주제어 및 핵심 단어의 출처	50
<표 4> 이형상의 「혈구도」 요지 및 핵심 단어 정리	59

그림 목차

〈그림 2-1〉	조호익의 「혈구도」	14
〈그림 2-2〉	주희의 「혈구도」	14
〈그림 2-3〉	조호익의 「성기도」	15
〈그림 2-4〉	『성리대전』 「통서」의 「성기도」	15
〈그림 2-5〉	「주자혈구양도」	17
〈그림 2-6〉	「위방혈구지도」	17
〈그림 2-7〉	「능혈구불능혈구도」	18
〈그림 2-8〉	「이재혈구지의도」	19
〈그림 2-9〉	「이재용인혈구지통의도」	20
〈그림 2-10〉	「용인혈구지도도」	21
〈그림 3-1〉	신응태의 「격물치지도」	24
〈그림 3-2〉	신응태의 「신독공부도」	25
〈그림 3-3〉	신응태의 「성의자수도」	26
〈그림 3-4〉	신응태의 「조목분배도」	27
〈그림 3-5〉	신응태의 「범성계분도」	29
〈그림 3-6〉	신응태의 「혈구도」	31
〈그림 3-7〉	신응태의 「혈구도」 확대	33
〈그림 3-8〉	곡 척	34
〈그림 3-9〉	신응태의 「강령합일도」	35
〈그림 3-10〉	신응태의 「마경복명도」	36
〈그림 4-1〉	이형상의 「삼강팔조도」	45
〈그림 4-2〉	이형상의 「신민도」	48
〈그림 4-3〉	이형상의 「치국도」	49
〈그림 4-4〉	이형상의 「혈구도」	52
〈그림 4-5〉	『대학강의』의 「평천하도」	57
〈그림 4-6〉	『대학훈몽』의 「평천하도」	58

I. 序論

1.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絜矩圖」를 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絜矩之道에 대한 저자의 사상을 탐구하고, 조선 유학 圖說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시대에는 다량의 유학 도설들이 제작되었다.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에 의하면, 저자가 수집한 조선 유학자 200여 명이 작성한 圖 자료는 5260건에 이른다.¹⁾ 도설은 유교 문물의 기록, 전수, 지식 및 정보의 전달, 교육, 학문의 성과나 교류, 經學의 방법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본고는 경학²⁾에 활용된 경우를 연구하였다.

조선 유학자들이 經書를 해석하여 남긴 도설의 개수는 2천개가 넘는다.³⁾ 이 수량을 볼 때, 도설이 경학에서 매우 유용했음을 알 수 있다. 『易經』이 1919개로 가장 많고, 뒤이어 『書經』이 374개, 『大學』과 『中庸』이 각각 87개, 73개를 차지한다. 그 밖에 『詩經』, 『孟子』, 『禮記』, 『論語』도 있지만 모두 40개 이하이다. 『역경』 관련 도설의 수가 눈에 띄게 많은데, 이것은 도설의 주기능이 그 효용성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유교 도상의 역사』에 실려 있는 ‘도’의 ‘『說文解字』 풀이’를 보면, 어원에서부터 도의 효용성이 담겨 있다.

“도는 口(나라 국)와 勹(인색할 비)가 합성된 글자이다. 口는 規(畫)를 의미하는데 이는 원을 그리거나[規] 선을 그어서[畫] 면을 나누어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勹는 어려운 것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양자의

1) 유권종,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 집문당, 2020, 135쪽.

2) 경학이란 四書나 五經과 같은 경서의 뜻을 해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3) 한국경학자료시스템에 등록된 도설 자료의 개수이다.

의미를 합친 글자인 圖는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헤아린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⁴⁾

이 외에도 ‘도는 도설을 수반해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글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실제의 형상을 보여주며, 글의 지루함과 난해함을 보완해 주는 것, 그리고 글에서 뽑은 정수를 표상하는 기능’⁵⁾이 있다. 「韓國 性理學의 圖說學的 理解」에서는 ‘도설은 난해한 뜻을 도식으로 나타내어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형용함으로써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로 뭉뚱그려진 개념과 개념의 상호관계를 그림으로 집약하여 개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법’⁶⁾이라고 설명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드러내거나 글의 요지를 표상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도의 효용성이다. 『역경』 관련 도설이 많이 제작된 이유는 유학에서 『역경』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만, 『역경』의 많은 형이상학적 개념들과 그 관계를 파악하기에 도설의 기능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효용성의 실제 사례가 기록된 대표적인 자료로 陽村 權近의 『入學圖說』이 있다. 『입학도설』은 권근의 경학사상과 性理說의 기본 구조를 도상과 도설의 체제로 제시한 저서⁷⁾로서, 조선 유학 도설의 始初라고 할 수 있다. 권근은 『입학도설』의 저술배경에서 직접 체험한 도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내가 금마군 적소에 있을 때 한두 초학자들이 와서 『중용』과 『대학』 두 서적을 읽을 때 내가 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주돈이의 그림을 근본으로 삼고 장구의 설명을 참고하여 그림을

4) 유권종,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 집문당, 2020, 18쪽.

5) 유권종, 같은 책, 7쪽.

6) 서경요, 「韓國 性理學의 圖說學的 理解」, 『유교사상문화연구』, Vol.24, 한국유교학회, 2005, 179쪽.

7)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65쪽.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선현의 격언을 취하여 그 뜻을 풀이하여 주었더니 학생이 그것을 따라서 묻는 바가 있었고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었다.”⁸⁾

위의 사례를 통해서, 효용성은 ‘저자의 경서에 대한 관점을 표상하여 원 텍스트[書]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외에도, ‘도설의 제작과 활용의 주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설은 저자의 위치, 학파, 생애, 학문관과 같은 개인적 요소와 역사적 배경이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학문 방법으로 도설을 이용한 발원지는 중국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에는 북송시대에 만들어진 유학 도설들이 존재하고 있고, 명대에는 이미 제작된 도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방법론적 접근이 존재했다고 한다.⁹⁾ 또, 元代 유학자인 林隱 程復心の 『四書章圖』가 조선의 도설에 영향을 준 것을 분석한 국내 논문과¹⁰⁾ 중국 도설이 조선의 도상에 기본적 형태와 표상 방식의 원형을 제공했음을 밝힌 연구¹¹⁾도 있다.

그러나 조선의 학자들은 경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도설에 반영시키면서 조선만의 특색을 구축해나갔다. 형이상학의 우주론이 발달한 중국에 비해 인간 본성과 심성론에 집중하여 높은 이론적·학술적 발전을 이루었다.¹²⁾ 이에 심학 도설은 독자적인 도상이 발달하고, 중국 심학 도상들보다 깊이와 상징성에서 매우 많이 진화되었다.¹³⁾ 이러한 성과는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 낸 조선 유학의 특징이다.

8) 유권종,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 집문당, 2020, 138쪽 본문 및 주석 참조, “權近, 『入學圖說』 「入學圖說序」, 洪武 庚午秋 謫在金馬郡 有一二初學輩來庸學二書者 語之諄復 尚不能通曉 乃本周子之圖 參章句之說 作圖以亦 又取先賢格言以釋其意 學者因有所問 又隨而答之.”

9) 유권종, 같은 책, 6쪽.

10) 김지훈·최재목, 「임은 정복심의 『사서장도은괄총요』에 대한 도상학적 접근」, 『연민학지』 Vol.37, 연민학회, 2022.

11) 유권종, 「철학부 : 중국 유학의 도설과 의의」, 『중국학보』 Vol.53, 한국중국학회, 2006, 313쪽, 국문초록 참조.

12) 김용재, 「毅堂 朴世和 선생의 儒學思想」, 『퇴계학논집』 Vol.26, 영남퇴계학연구원, 2020, 12쪽.

13) 유권종,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 집문당, 2020, 120쪽.

혈구지도는 『대학』의 전10장인 「治國·平天下」章에 등장하는 용어이다. 전10장은 위정자가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財用, 好惡, 義利에 연관시켜 논하는 내용이다. 전10장 2절 소주에서 ‘혈구지도란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要道’¹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혈구지도를 도설로 제작한 것이 바로 「혈구도」이다.

조선 유학사에서 혈구지도는 크게 주목 받은 주제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조선 유학자들은 人物性同異論, 四端七情과 같은 인간 본성과 심성, 그리고 주희가 중시한 ‘格物致知’ 같은 것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 혈구지도는 정확한 해석을 정립하려는 경학의 일례로 논의되거나¹⁵⁾ 소수의 실학자들에 의해 현실과 관련된 부분[치국·평천하]이라는 이유로 언급되는 정도였다.¹⁶⁾

위에서 살펴봤듯이 도설이 제작되고 활용되는 주요 동기는 도의 효용성에 있다. 그런데 혈구지도가 나오는 전10장은 현실 정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역경』이나 『중용』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조선 유학자들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조선시대 「혈구도」들은 어떤 의미와 목적에서 제작된 것일까?

조선시대에 제작된 「혈구도」는 작자 미상 5개를 제외할 시, 총 11개이다.¹⁷⁾ 이 중에서 4개의 「혈구도」는 이미 형식에서부터 제작 의도를 알 수 있다. 전10장의 내용을 요지에 따라 분절하여, 그 논리 구조와 체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5개의 「혈구도」는 제각기 다른 모양과 형식을 띠고 있다. 어렵지 않은 혈구지도를 도설로 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의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혈구도」를 제작한 목적과 도설의 내용, 의미, 저자의 관점과

14) 『大學』, 「傳十章」, 2節 註釋 “此 覆解上文絜矩而字之意…平天下之要道也.”

15) 최석기,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보고서, 2020, 174-175쪽, “대체로 대전본 소주를 비판하거나 그 설을 바탕으로 더 정밀한 논의를 하면서 나타난 성향이다.”

16) 최석기, 같은 책, 164쪽, “조선후기 일부 실학자들은 오히려 추행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효제자(孝悌慈)·혈구(絜矩)·용인(用人)·재용(財用)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현실의 행사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였다.”

17)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특징을 분석한다.

모든 「혈구도」를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사상의 시대별 변천사를 알 수 있다. 그 일례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혈구도설」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신응태, 이형상의 「혈구도」를 분석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본고의 선행 연구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혈구지도, 둘째 조선시대 유학자의 도설, 셋째 신응태와 이형상에 대한 연구, 넷째 「혈구도」이다.

먼저, 혈구지도를 분석하는 여러 논문들¹⁸⁾이 있고, 『대학』 연구에 포함되거나¹⁹⁾ 忠愍와 연관된 경우,²⁰⁾ 덕 윤리나 상담, 교육과 같이 현대와 관련한 연구²¹⁾ 등 여러 분야의 논문들이 있다.

도설에 관한 연구로는 조선시대 도설의 시초격인 권근의 『입학도설』 관련 연구들부터²²⁾ 저명한 유학자들의 도설을 모아서 분석한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²³⁾ 조선시대 유학 관련 도설의 총 집합서로 명칭과 유래부터 설명하는 『한국 유교 도상의 역사』,²⁴⁾ 조선시대의 경학 관련 도설을 모은 『조선시대 大學圖說』,²⁵⁾ 『조선시대 中庸圖說』²⁶⁾ 등이 있다. 근래에는 九龍齋 白鳳來의

18)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 함의 연변 고찰」, 『中國文學』 Vol.107, 한국중국어문학회, 2021, 조희정, 「『대학(大學)』 ‘혈구지도(絜矩之道)’의 해석 문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2014 등 참고문헌 참조.

19) 박지현, 「성호 이익의 경학과 경세론 - 『대학』 제10장 ‘혈구지도’를 중심으로 -」, 『장서각』 Vol.47,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20)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愆)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Vol.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1.

21) 조선아, 「‘絜矩之道’와 ‘共感’을 통한 현대사회의 소통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2020.

22) 구춘수, 「권근의 입학도설 고찰」, 『論文集』 Vol.28, 空軍士官學校, 1990.

23) 한국사상연구회,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예문서원, 2000.

24) 유권종,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 집문당, 2020.

25)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26)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도설』, 보고서, 2013.

도설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되는 등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작된 수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신응태의 선행 연구는 『조선시대 대학도설』과 김용남의 「용애 신응태의 삶과 시세계」²⁷⁾가 유일하다. 이형상은 악학, 시, 역학, 예학, 자학, 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고, 그에 따른 여러 논문이 있다. 제주도의 행사들을 그림으로 기록한 『耽羅巡歷圖』와 지리서인 『南宦博物誌』, 『江都志』, 『東耳刪略』, 『北厓拾零』에 관한 논문들, 그리고 악학과 자학 관련 연구도 있다. 이 외에도 제주 목사 시절의 치적에 관한 연구²⁸⁾와 시에 관한 논문²⁹⁾도 다수 존재한다. 철학에 관련된 것으로는 『한국사상가의 새로운 발견』³⁰⁾, 「일상적 도덕규범으로서의 역학」³¹⁾, 『병와 이형상의 학문과 사상』³²⁾ 등이 있다.

현재 「혈구도설」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조선시대 대학도설』이 유일하다. 『조선시대 대학도설』은 『대학』의 구조와 요지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저서이다. 따라서 「혈구도」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는 보충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석기는 한국의 경학 연구가 丁若鏞과 같은 특정한 학자들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³³⁾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유권종은 조선 유학 도설 자료의 풍부성과 발전된 수준을 들어, 儒教 圖學 혹은 圖像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³⁴⁾을 이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신응태와 이형상의 「혈구도」는 『조선시대 대학도설』의

27) 김용남, 「용애 신응태의 삶과 시세계」, 『충북학』 제21집, 충북학연구소, 2019.

28) 이남옥의 「제주 목사 이형상의 풍속 교화와 폐정 개혁 정책」, 『국학연구』 Vol.47, 한국국학진흥원, 2022.

29) 최재남,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Vol.13, 한국한시학회, 2009.

30) 이형상·박문호·김용걸 등, 『韓國思想家的 새로운 發見 : 瓶窩 李衡祥·壺山 朴文鎬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31) 김학권, 「李衡祥의 日常的 道德規範으로서의 易學」, 『공자학』 Vol.27, 2014.

32) 박규홍·강창언·구지현 등, 『瓶窩 李衡祥의 학문과 사상』, 경북대 퇴계연구소, 2021.

33) 최석기,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보고서, 2020, 7쪽.

34) 유권종,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 집문당, 2020, 7쪽.

논의를 제외하면 종래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기에 조선 유학사 연구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경학 도설의 분석은 저자의 학문 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충분히 선행된 후, 도설과 견주어서 이루어질 때 보다 풍부하고 명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응태의 연구가 현재 김용남의 「용애 신응태의 삶과 시세계」와 『조선시대 대학도설』 외에는 없고, 이형상의 경우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만, 방대한 양의 저술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학자 모두 부분적으로 연구된 것을 토대로 분석했기에 차후 보충되거나 수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조선시대 「혈구도설」의 수가 많지만 내용의 형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10장을 단락으로 분절하여 그 구조와 논리 체계를 드러내는 형식으로, 전10장의 모든 내용을 표기하는 유형이다. 李泰壽, 金謹行, 韓元震, 權炳의 「혈구도」가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전10장의 모든 내용을 신기 위해 총 23개의 구절에서 구절을 대표하는 단어나 문구를 뽑아 배치한다. 한원진은 해당 구절의 순번을 적어서 배치하였다.

두 번째는 핵심 원리 혹은 주제나 요지를 강조하는 유형이다. 백봉래와 金壽民, 朴慶家 「혈구도」의 유형이다. 전10장의 전체 내용이 아닌, 저자가 강조하는 특정 부분만 도설에 실는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을 합친 도설이다. 핵심적인 내용과 전10장 전체를 둘 다 실는 유형으로, 신응태의 「혈구도」가 유일하다.

이형상의 「혈구도」는 단락 분절 유형에 속하지도 않고, 핵심 요지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신응태와 이형상의 「혈구도」는 다소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앞에서 생졸년 순서로써 신응태와 이형상을 구별했지만, 실제 연대가 비슷해서 동시대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신응태와 이형상은 동시대의 동일한 성리학자이지만 당색에서 차이가 있다. 신응태는 宋時烈的 문인으로서 성리학자·주자학파·노론 계열로 분류되지만, 이형상은 성리학자로 출발하여 말년의 저술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認容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당색이 뚜렷하지 않은 학자로 평가된다. 이처럼 신응태와 이형상은 동일한 시대적 배경에서 다른 위치에 있었기에 학문적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혈구도」에도 그런 특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혈구도」의 분석에 앞서 작자가 어떤 형식으로 도식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의 「대학도설」들을 모두 참고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상학적 특징과 그 근거를 찾아서 정리한 후, 「혈구도」에 적용하여 도설을 분석했다. 이때, 학자의 생애 및 학문관과 같은 것들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두 「혈구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혈구도」와 다른 도설을 비교할 때, 그 범위를 「대학도설」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경서라면 「혈구도」와 내용의 연관성이 적어서 도식화의 기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래서 동일한 경서로 한정하여 도설의 특징과 근거를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인용되는 모든 도설 관련 자료(도 및 설명)는 최석기·강현진의 『조선시대 대학도설』에 정리된 것을 주로 근거로 삼아,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 활용하였다.³⁶⁾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한국경학자료시스템³⁷⁾ 등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35) 李泰壽는 「中庸七圖」중에서 1圖부터 4도까지 도설에 원형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학 관련 도설에서는 제목이나 중요한 단어를 둘러싸는 네모나 선만 사용했다. 저자가 같더라도 경서가 다르면 다른 유형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36) 『조선시대 대학도설』과 관련하여 이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받은 최석기, 강현진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7) 한국경학자료시스템: (<http://koco.skku.edu/>)

II. ‘繫矩’에 대한 기초적 이해

1. 혈구지도의 出處

「혈구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혈구지도의 뜻과 의미, 그 출처를 살펴본다.

『대학』은 유학의 기본 경전 중 하나로 본래 『예기』 49편 중에서 42편에 속해있었다. 宋代에 이르러 『대학』은 『중용』과 함께 하나의 책으로 독립되었다. 주희는 程頤의 초보적 주해 작업 위에 集註를 하고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순서의 사서체계를 정립하였다. 『대학』은 덕에 들어가는 문 즉 ‘入德之門’이라고 하여 초학자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경서로 존중되었다.³⁸⁾

주희는 『대학』을 經1장과 傳10장으로 나눈 후 주석을 달았다. 그리고 본문에 착간과 오탈이 있다고 여겨 교정했다. 또, 「格物致知」章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직접 지어서 보충하였다. 주희는 ‘經’은 孔子의 말씀을 曾子가 기술한 것이고 ‘傳’은 증자의 말을 그의 문인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했다.

『대학』은 三綱領 八條目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령이란 ‘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으로 明明德·親民[新民]·止於至善이 三綱領이다, 八條目은 격물·치지·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전문 총 10장은 하나의 장마다 강령과 조목들을 설명한다. 1장은 명명덕, 2장은 신민, 3장은 지어지선, 4장은 본말, 5장은 격물치지, 6장은 성의, 7장은 정심·수신, 8장은 수신·제가, 9장은 제가·치국, 10장은 치국·평천하이며, 혈구지도는 마지막 전10장에 나온다.

전10장은 총 23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절과 2절은 혈구지도

38) 최재목, 「조선에서 주자의 大學章句에 대한 한 도전 - 노수신의 「大學集錄」을 중심으로-」, 『陽明學』 Vol.27, 한국양명학회, 2010 및 최재목, 「우주의 원리, 인간의 도리: 四書에 대하여」, 『신동아』 (동아일보사, 2003.01.22.)(shindonga.donga.com/3/all/13/102155/1), 검색일 2023.05.02, 참조.

를 설명하고, 나머지 21개의 구절은 위정자가 혈구지도를 통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논한다.

2. ‘혈구’의 의미

혈구지도에 대한 설명은 전10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른바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라는 것은 윗사람이 노인을 노인으로 섬기면 백성들이 효를 흥기하고,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백성들이 공경함을 흥기하며, 윗사람이 고아를 돌보면 백성들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혈구의 도가 있다.”³⁹⁾

“윗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뒷사람에게 먼저 하지 말고, 뒷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왼쪽 사람을 사귀지 말고, 왼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오른쪽 사람을 사귀지 말 것이니, 이것을 일러 혈구의 도라 한다.”⁴⁰⁾

혈구에 대한 최초의 해석은 漢代 유학자 鄭玄의 훈고이다.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絜矩)’ 함의 연변 고찰」에 따르면, 정현은 혈을 結, 契의 뜻으로 보았고 結은 法이라고 하여 혈구를 ‘마땅히 이를 집행하여 하는 일에 잘못이 없음’으로 해석했다.⁴¹⁾ ‘위정자가 규범으로써 孝悌慈를 몸소 실천하면 動作不

39) 『大學』, 「傳十章」, 1節 “所謂 平天下在 治其國者 是以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是以 君子有絜矩之道也。”

40) 『大學』, 「傳十章」, 2節 “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

41)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絜矩)’ 함의 연변 고찰—정현(鄭玄)과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Vol.107, 한국중국어학회, 2021, 5쪽.

失之하여 치국평천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⁴²⁾이다. 唐代 孔穎達 역시 정현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 위정자가 법도를 잘 지키면 다른 이들이 따르는 의미 정도로 보았다. 이것이 주희에 이르러서 의미가 확장된다.

주희는 『大學章句』 전10장 1절의 주석에서 ‘絜은 헤아림, 矩는 네모진 것을 만드는 기구⁴³⁾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바여서 한 지아비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함이 있게 해서는 안 되며, 군자가 반드시 같은 바를 미루어서 남을 헤아려 彼我的 사이로 하여금 각각 分數와 소원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로써 상하와 사방이 고르고 方正하여 천하가 평안해진다.’라고 적었다⁴⁴⁾. 마찬가지로 2절 주석에서도 ‘혈구 두 글자의 뜻을 반복 해석한 것으로 몸이 처한 바 상하사방의 長短廣狹이 피차 똑같아서 방정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것이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요도이고, 전10장의 뜻이 모두 이로부터 미루어 간 것’이라고 말했다.⁴⁵⁾ ‘혈구’를 ‘자로 잴다, 자로 헤아린다.’의 의미로 해석한 후, 헤아린 결과로 천하가 평안해짐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朱文公文集』 「答江德功」에서는 혈구란 ‘자로 재서 네모반듯하게 만든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자로 잴다는 의미가 되려면 矩絜이 되어야 한다.’⁴⁶⁾라며 『대학장구』에서의 풀이를 부정하였다. 이 같은 주희의 서로 다른 해석을 놓고 조선시대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본말이 무엇인지 논의되었다. 전자는 주희 초년의 설이고 후자는 말년의 설이라는 의견을 낸 학자도 있었고,⁴⁷⁾ 정약용은 주희와 마찬가지로, ‘語勢로 볼 때 矩絜이어야 하므로 재어서 상하사방을 바르게 하다.’라는 해석이 옳다고 보았다.⁴⁸⁾ 어느 것이 더 적합한

42)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絜矩)’ 함의 연변 고찰—정현(鄭玄)과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Vol.107, 한국중국어학회, 2021, 6쪽.

43) 성백효 역주, 『大學·中庸集注』 개정증보판, 전통문화연구회, 2016, 57쪽, “絜 度也 矩 所以爲方也.”

44) 성백효 역주, 같은 곳.

45) 성백효 역주, 같은 책, 58쪽.

46) 전병욱, 「혈구지도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東洋哲學研究』 Vol.83, 동양철학연구회, 2015, 191쪽.

47)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3.03.10, 『溪湖集』, 「答金鼎運」, “二者皆有朱子說. 而下說是初年之論.”

48)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泰東古典研究』 Vol.44, 한

해석인지에 대해 결론지어진 것은 없다. 혈구 해석에 관하여 잘 정리된 연구 논문들이 존재하기에⁴⁹⁾ 본고에서는 두 가지 해석 모두 통용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유교 논리에 의하면 두 해석은 因果관계이다. 전자의 해석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설명하고, 후자는 헤아려서 ‘방정하게 만들어지는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여기서 헤아림의 결과가 반드시 방정한 형태로 보장되어야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대학』에서 혈구지도가 나오는 「치국·평천하」장의 앞부분은 도덕적 완성자가 되기 위한 수신(修身)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적 완성을 이룬 후에야 치국·평천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유학의 논리이다. 도덕적 완성을 이룬 사람이 국정을 운영한다면 백성들의 의중을 잘 헤아려 萬事를 公平無私하게 처리할 것이므로 모든 백성들이 各得分願하게 되고, 상하사방이 방정해지는 결과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따라서 ‘헤아리는 것’과 ‘네모반듯해지는 결과’는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주희가 語順을 근거로 헤아린다는 해석을 부정한 것은, 혈구의 결과를 강조하는 의미, 즉 ‘헤아림의 실천’과 그 결과로서 ‘방정해지는 수준에 이를 것’에 더 의미를 두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또, 이미 과거에서부터 ‘구’는 ‘직각·네모진 것을 재는 기구’ 외에도 ‘네모반듯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쓰인 기록이 있다. 『맹자』의 「離婁章句 上」편에는 ‘規矩는 방형과 원형을 만드는 지극함이다.⁵⁰⁾’라는 말과 規와 矩가 없으면 공수자라도 방형과 원형을 만들 수 없다⁵¹⁾는 내용이 있다. 「盡心章句」 下편에는 ‘목공과 수레 만드는 장인은 남에게 規矩는 줄 수 있어도….’⁵²⁾ 라는 대목이 나온다. 수레는 둥근 바퀴와 여러 면의 사각형들로 만들어진 사물이다.

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167-168쪽.

49)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絜矩)’ 함의 연변 고찰—정현(鄭玄)과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Vol.107, 한국중국어문학회, 2021, 조희정, 「『대학(大學)』 ‘혈구지도(絜矩之道)’의 해석 문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2014, 전병욱, 「혈구지도(絜矩之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東洋哲學研究』 Vol.83, 2015.

50) 『孟子』, 「離婁章句 上」, “孟子曰 規矩 方員之至也…”

51) 『孟子』, 「離婁章句 上」, “孟子曰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員圓…”

52) 『孟子』, 「盡心章句 下」, “孟子曰 梓匠輪輿能與人規矩…”

수레에서 사각의 면들이 정확한 각도로 맞붙어 있지 않으면 물건을 싣는 부분이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구’는 ‘네모반듯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儒教大事典』에서는 혈구지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자로 물건을 재듯이 내 마음을 자로 삼아 남의 마음을 재고, 내 처지를 생각해서 남의 처지를 아는 방법. 혈(絜)은 ‘끌어맨다.’ 구(矩)는 ‘자’라는 뜻이므로 혈구는 ‘자로 잴다.’는 뜻이 된다. 그 자는 곧 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도덕적 양심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에 존재하는 양식으로서 상하·전후·좌우의 관계 속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과 같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공부가 천하를 태평하게 만드는 평천하의 길인 것이다. 중국 고대에 쓰여진 ‘천하’란 말의 의미는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오랑캐들로 구성된 세계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지상세계의 전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평천하란 지상 세계의 안녕과 질서의 완성을 뜻했다.···53)”

전통적인 해석은 1,2절의 주석처럼 道學的·정치적인 면이 부각되었고, 이후 점차 인간관계에서의 윤리적인 의미로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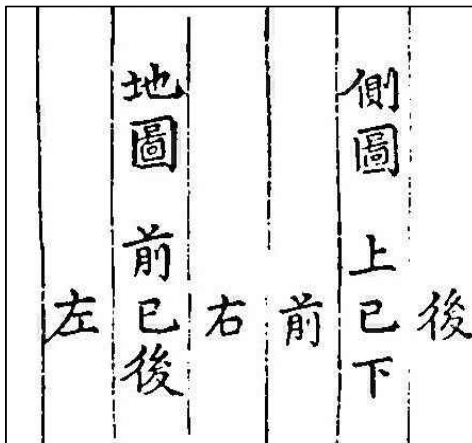
3. 조선시대 ‘絜矩圖’의 최초 출현

현재 『조선시대 대학도설』에 실려 있는 「혈구도」는 총 16개다. 이것은 도설의 제목이 「혈구도」가 아니라 「傳十章圖」인 것까지 포함한 개수이다. 여기서 11개는 작자가 확실하여 조선시대 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조호익, 신응태, 이형상, 이태수, 한원진, 김근행, 백봉래, 권병, 김수민, 박경가가 「혈구도」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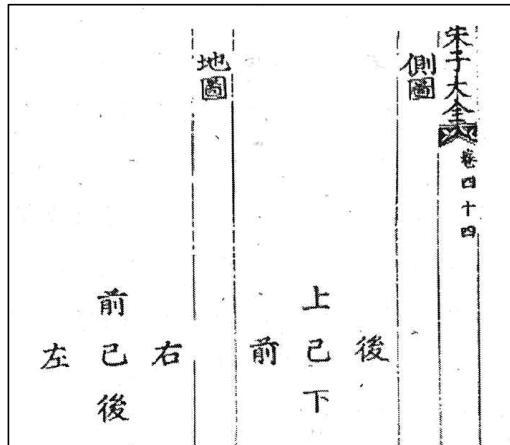
53) 儒教事典編纂委員會, 『儒教大事典』, 박영사, 1990, 1712쪽.

가장 첫 번째로 제작된 「혈구도」는 조호익이 그린 것으로, 『芝山集』 「大學童子問答」에 실려 있으며 도설은 다음과 같다.

“주자가 강덕공에게 답한 편지에 ‘絜矩에 대한 설은 대개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그에 대처하는 바의 도를 삼는 것이다. 그대가 보내온 편지의 설은 분명하지 않다. 지금 나의 설로 두 개의 그림을 그렸으니, 합해서 보면 방정한 형태가 은연중에 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그림을 여기에 실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혈구의 형태를 알아 거기에 힘쓰게 하고자 한다.”⁵⁴⁾



〈그림 2-1〉 조호익의 「혈구도」



〈그림 2-2〉 주희의 「혈구도」

조호익의 「혈구도」는 주희의 「혈구도」와 동일한 형태이다. 상하와 사방이 고르고 방정해진다는 주석의 글귀를 도식화한 것이다. 도설의 내용은 ‘혈구의 결과’ 또는 ‘혈구를 한 이후의 형태’이다. 地圖와 側圖 두 개의 그림으로 그린 것은 上·下, 前·後, 左·右를 모두 표기하기 위해서이다. 측도는 깊이를 볼 수 있는 영역이며 지도는 넓이(평면도, 2차원)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자신으로부터 상·하는 깊이(3차원)가 되고 전후·좌우는 넓이가 되므로 지도와 측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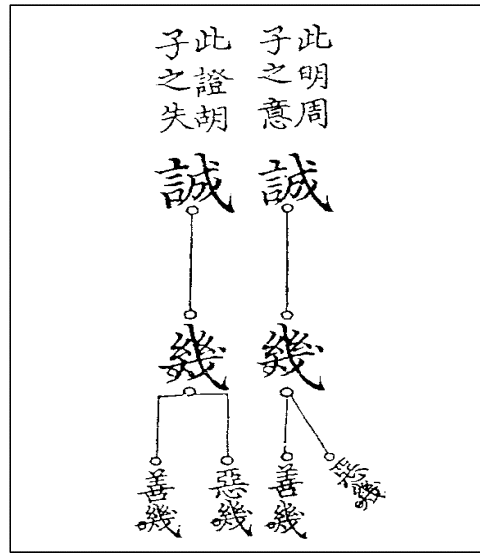
54)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57쪽.

개의 도설로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조호익은 「誠幾圖」를 그렸는데, 『性理大全』에 수록된 「通書」의 「성기도」와 유사하다.



〈그림 2-3〉 조호익의 「성기도」



〈그림 2-4〉 『성리대전』 「통서」의 「성기도」

조호익의 「혈구도」에서는 저자만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 도설은 사상이 같더라도 자신만의 구조나 형태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동일하게 그려진 조호익의 「혈구도」가 다소 아쉽다. 도설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이전 시기라서 이 같은 한계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응태부터는 도설의 형태나 내용, 표현 방법에서 확연한 변화가 나타난다. 위 「혈구도」에서는 ‘상하사방이 방정⁵⁵⁾’이라는 주석이 전문보다 우선시 되어 도설에 표기된다. 이런 경향은 조선시대 「혈구도」의 초반에 나타난다. 그리고 점차 전문을 싣는 것으로 바뀐다.

55) 『大學』, 「傳十章」, 1節 註釋 “…則上下四傍 均齊方正 而天下平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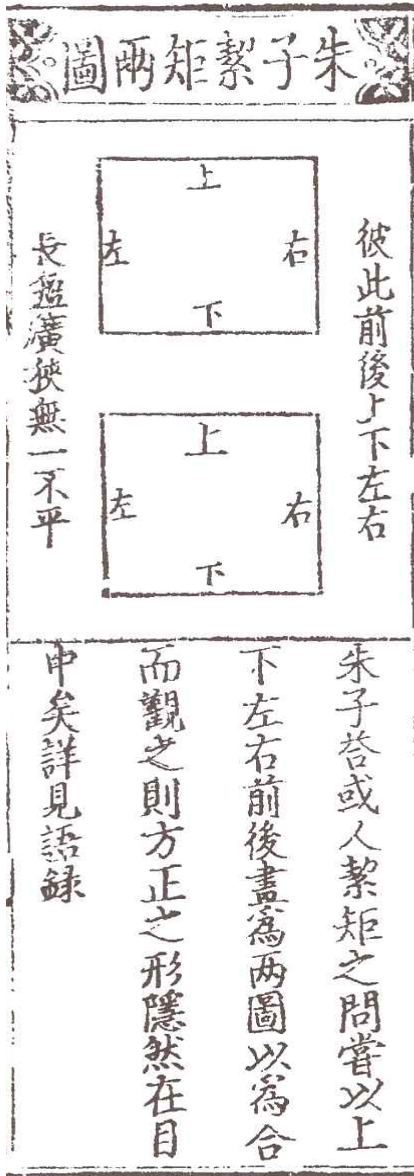
4. 중국의 「혈구도설」

『조선시대 대학도설』에 실린 작자 미상의 「혈구도」 5개 중에서 4개가 정복심의 『사서장도』와 중복된다고 한다.⁵⁶⁾ 조선의 유학자들이 『사서장도』를 보고 圖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복심의 『四書章圖櫟栝總要』⁵⁷⁾에 있는 혈구 관련 도설과 『조선시대 대학도설』의 중복되는 「혈구도」를 아래에 첨부하였다. 본고에서 중국의 「혈구도설」을 분석하지는 않지만, 후술할 신응태·이형상 도설과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6)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사, 2012, 565-568쪽.

57)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http://hq.vacusoft.co.kr:35000/rsh/?rshID=AKS-2012-EBZ-2101>), 검색일 2023.05.17, “정복심은 『사서장도』를 저술했는데 『사서장도』는 『사서장도찬석』과 『사서장도은괄총요』로 이루어져 있다. 『사서장도은괄총요』는 사서집주의 각 장마다 도식과 주석을 붙인 『사서장도찬석』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입문적인 성격의 글이며 독립적인 저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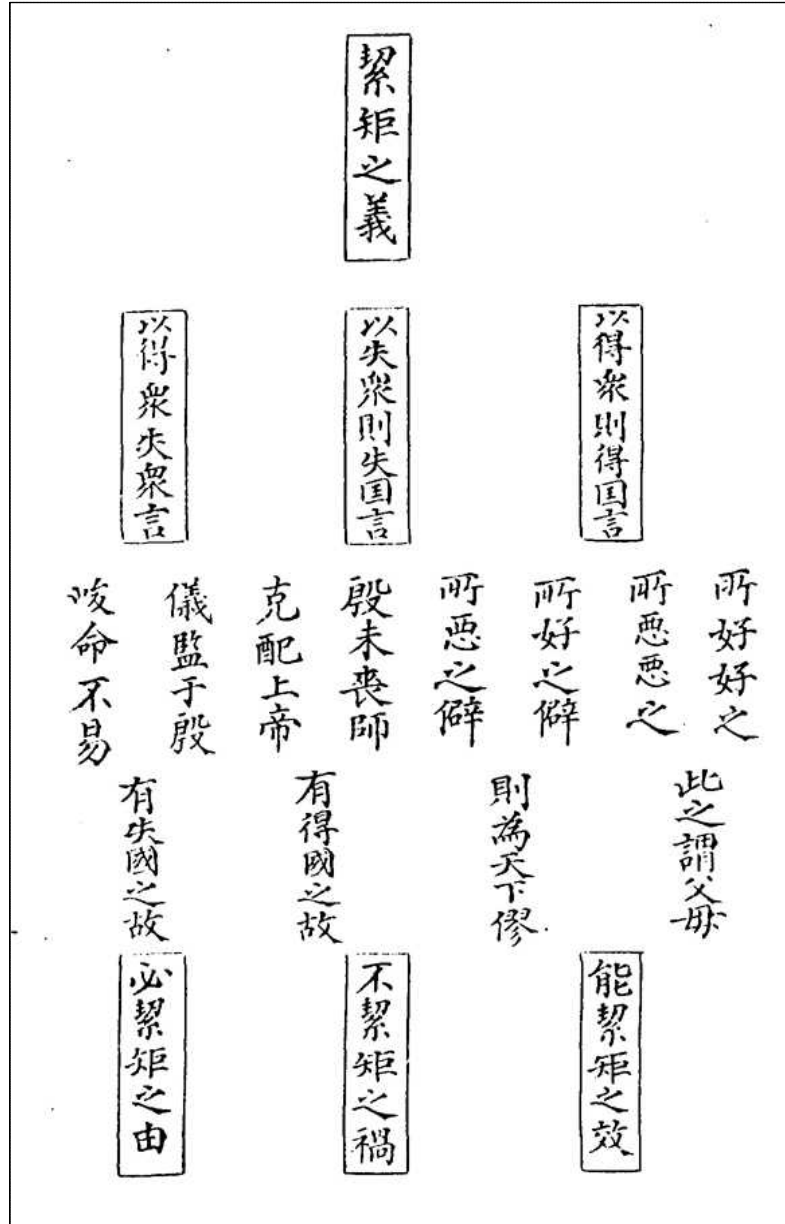


<그림 2-5> 「朱子繫矩兩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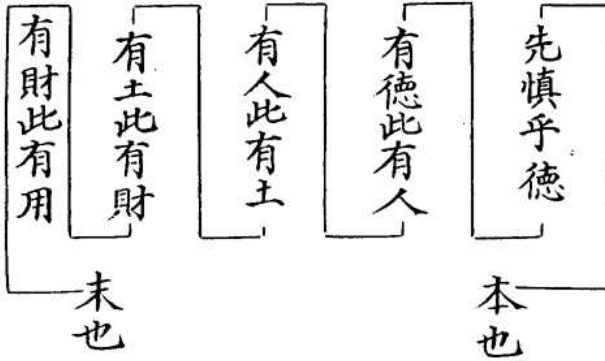
<그림 2-6> 「為方繫器之圖」

『사서장도』와 중복되는 『조선시대 대학도설』의 「혈구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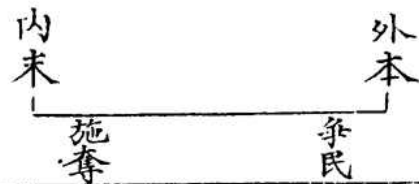


〈그림 2-7〉 「能絜矩不能絜矩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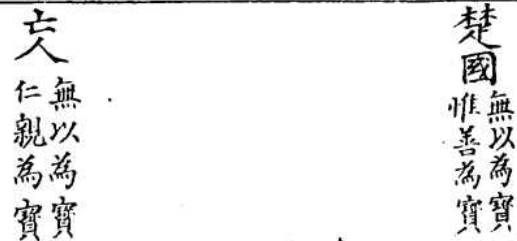
義 之 矩 絜 財 理



聚 民 散 財 以 所 之 得 則 善 以 此



散 民 聚 財 以 所 之 失 善 不 以 此



意 之 末 內 本 外 可 不 見 此

〈그림 2-8〉「理財絜矩之義圖」

理財用人絜矩之通義

右傳之十章釋治國平天下

此承前言
 仁者以財發身
 利而行之也

此歸於不親
 不仁以身發財
 兵而用小人

生眾食寡
 為疾用舒
 上仁下義
 事終財足
 不察雜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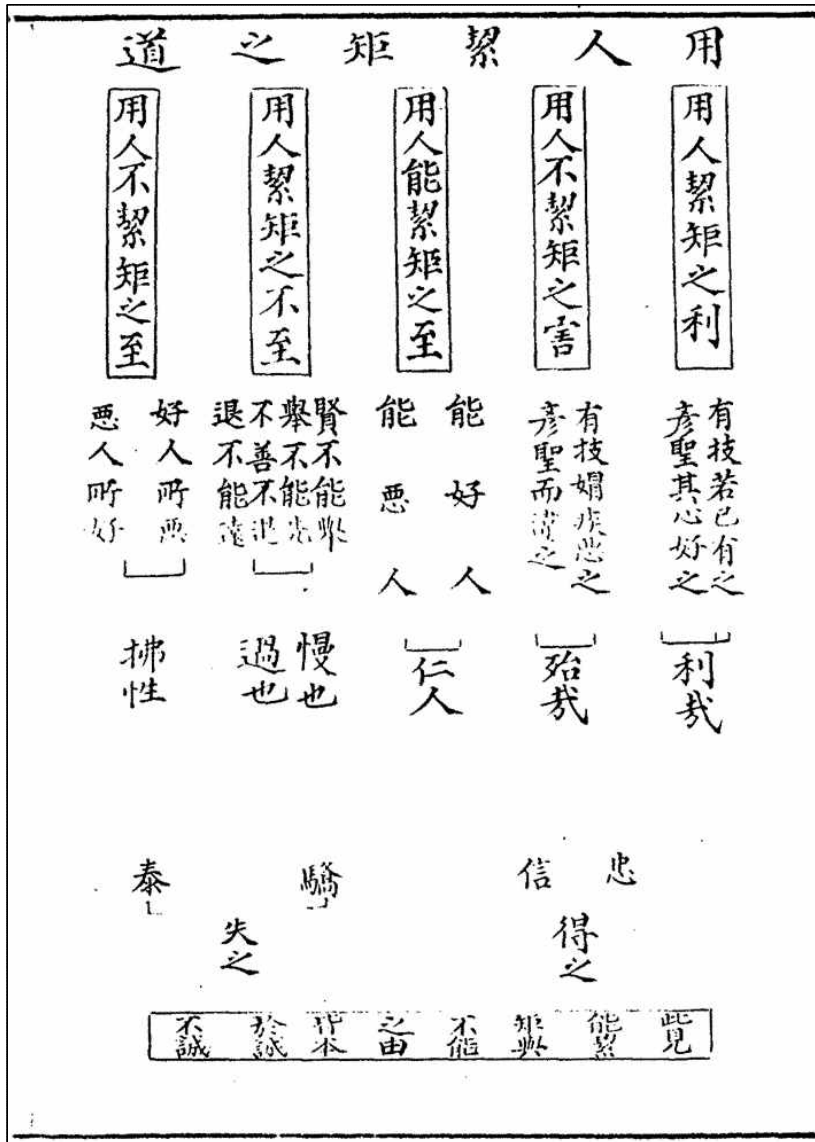
不畜牛羊
 不畜聚斂臣
 宥于畜盜臣
 使小人為
 專務財用
 災害必至

此以義為利之效

此以義為利之大

此以利為利之害

〈그림 2-9〉「理財用人絜矩之通義圖」



〈그림 2-10〉「用人絜矩之道圖」

Ⅲ. 신응태의 「絜矩圖」 분석

1. 생애 및 학문관

申應泰의 생몰 연대는 1643년에서 1728년이다.⁵⁸⁾ 본관은 鵝州, 초명은 應漑, 자는 吉來, 호는 龍崖이다. 신응태는 1643년 청주 산동면 송곡리에서 태어났다. 8세에 송곡공 신응사⁵⁹⁾에게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13세에 『맹자』와 『중용』을 읽었고, 17세에는 『논어』를 읽었으며, 20세 겨울에 『주역』을 읽었다. 25세에 尤庵 宋時烈과 同春 宋浚吉을 만났다. 27세에 『朱書節要』를 읽었으며 1679년에는 『주서절요』와 『近思錄』을 순환하며 읽고 긴요한 것을 간추려 2권을 만들었다.⁶⁰⁾ 그는 대소과 초시에 일곱 번 합격하고도 시운이 없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개의치 않았다.⁶¹⁾ 1684년 42세에 과거를 폐하고 정식으로 송시열의 문하에서 성리학에 전념하며 淸貧自守한 선비의 삶을 살았다. 주로 송시열 밑에서 함께 수학한 동문 및 동향들과 교류하였으며 1699년 57세 되던 해에 『四書提要圖』 2권을 완성하였고 『斯文序設』 1권을 지었다. 77세 때 『사서제요도』를 권상하⁶²⁾에게 올리고 수정을 청했다. 1728년 8월에 생을 마쳤다.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더불어 역학과 천문·역수에도 밝고, 학력이 깊고 순수하며 조예가 정밀하고 학문을 좋아해서 송시열이 특별히 추천하고 인정한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金昌協은 신응태를 ‘우암의 高弟’, 권상하는 ‘일대의 선사’라고 하였다. 스승 송시열의 글을 가장 좋아하여 ‘動靜語默’ 한

58) 생애 부분은 김용남, 「용애(龍崖) 신응태(申應泰)의 삶과 시세계」, 『충북학』 제21집, 충북학연구소, 2019에서 대부분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59) 김용남, 「용애 신응태의 삶과 시세계」, 『충북학』 제21집, 2019, 45쪽, 각주 11 참조.

60) 김용남, 같은 책, 46쪽.

61) 김용남, 같은 책, 48쪽.

62) 조선후기 유학자로 송준길·송시열의 문인이다. 본관은 安東. 자는 致道, 호는 遂菴·寒水齋이다.

가지로 법을 삼았으며,⁶³⁾ 송시열이 주희를 존송하였으므로 스승을 따라 주희와 程子の 道統을 이어나가겠음을 시로 표현한 바 있다.⁶⁴⁾

저서로는 『龍崖文集』 4권 1책과 『사서제요도설』 2권 1책이 있다.

2. 신응태 「대학도설」의 특징

신응태 「대학도설」의 도상학적 특징은 ‘도설을 도표에 포함시킨다는 것’과 ‘의미에 따른 여러 가지 선’이다. 선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생략하거나, 의미에 따라 일정부분을 여백으로 비워두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유 없이 일부러 선을 추가하거나 생략한 경우이다. 이는 신응태가 도설의 기능적 측면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특징들을 차례대로 도설과 함께 설명한다.

첫 번째 특징은 도상에서 설명의 배치이다. 신응태는 도에 관한 저자의 설명을 별도의 공간에 작성하지 않고 도표에 같이 배치한다. 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설 자체에 글이 많은 편이다. 「格物致知圖」의 설명을 보면 ‘주자 보망장의 설을 취해 도표를 그렸고, … 도표 아래에 나의 견해를 덧붙여 힘을 쓰는 방법을 나타냈다.’⁶⁵⁾는 내용이 있다. 아래의 「격물치지도」와 「慎獨工夫圖」에서 도설은 도표의 아래 혹은 좌측에 적혀있다. 글을 읽는 순서가 보통 위에서 아래로, 右에서 左인 것을 볼 때, 설보다 도표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3) 김용남, 「용에 신응태의 삶과 시세계」, 『충북학』 제21집, 충북학연구소, 2019, 61쪽.

64) 김용남, 같은 곳.

65)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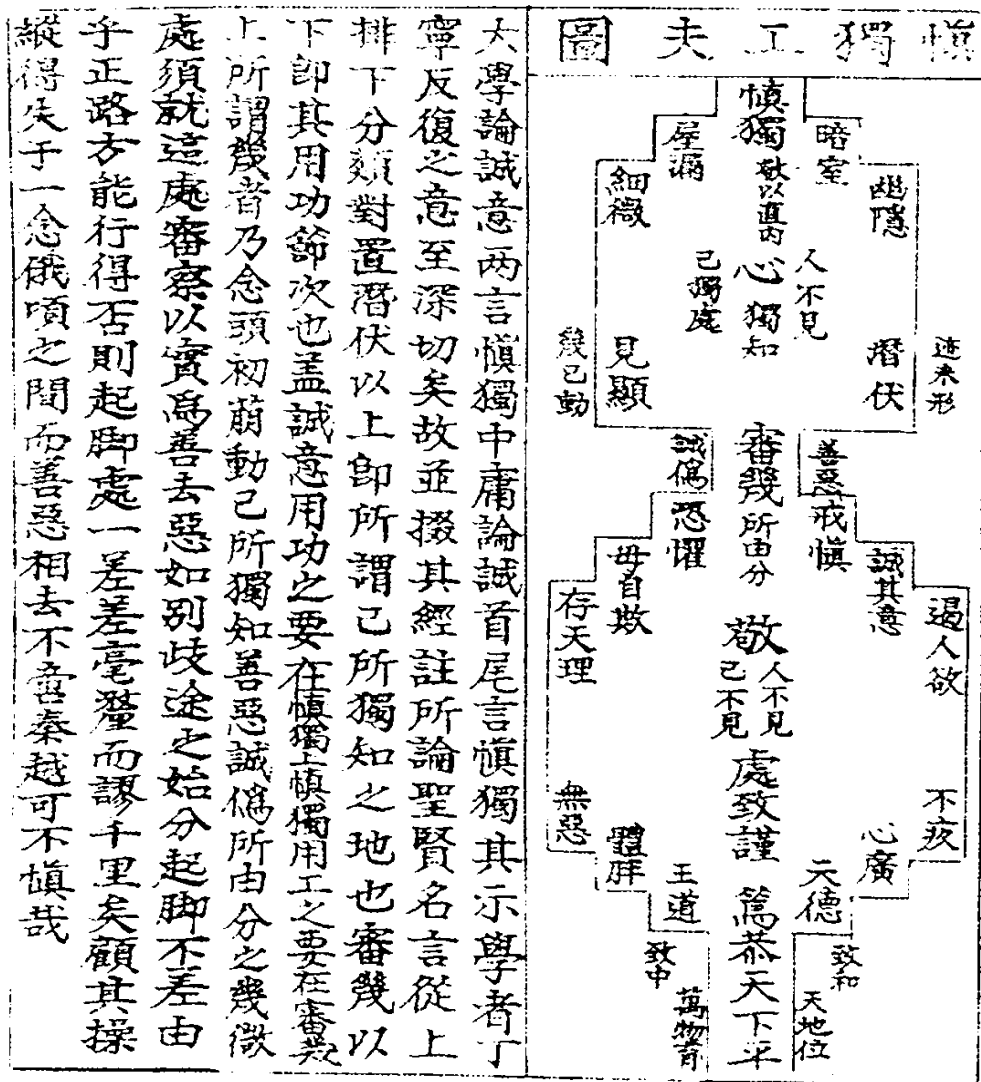
格物致知圖

心外無理故窮理即所以致知
衆理之體即吾心之體
發明焉

格物致知之學首見於大學之書章句明之或問盡之高學者最
初用力之地學者苟能即夫事物之中而因其所知之理推而究之
至於一日既然而貫通焉則於天下之物皆有以知其義理精微
之極而吾之聰明睿智亦有以極其心之本體而無不盡矣其爲
學願不大歟故謹取朱子補亡章之說而高之圖又取或問中所
引程子之說而飾其安語附見于圖之下方以示用力之方云

<p>格物致知之學首見於大學之書章句明之或問盡之高學者最 初用力之地學者苟能即夫事物之中而因其所知之理推而究之 至於一日既然而貫通焉則於天下之物皆有以知其義理精微 之極而吾之聰明睿智亦有以極其心之本體而無不盡矣其爲 學願不大歟故謹取朱子補亡章之說而高之圖又取或問中所 引程子之說而飾其安語附見于圖之下方以示用力之方云</p>	<p>人心之靈其天 理之體即吾心之體 衆理之體即吾心之體 發明焉</p> <p>格物致知之學首見於大學之書章句明之或問盡之高學者最 初用力之地學者苟能即夫事物之中而因其所知之理推而究之 至於一日既然而貫通焉則於天下之物皆有以知其義理精微 之極而吾之聰明睿智亦有以極其心之本體而無不盡矣其爲 學願不大歟故謹取朱子補亡章之說而高之圖又取或問中所 引程子之說而飾其安語附見于圖之下方以示用力之方云</p>
--	---

〈그림 3-1〉 신응태의 「격물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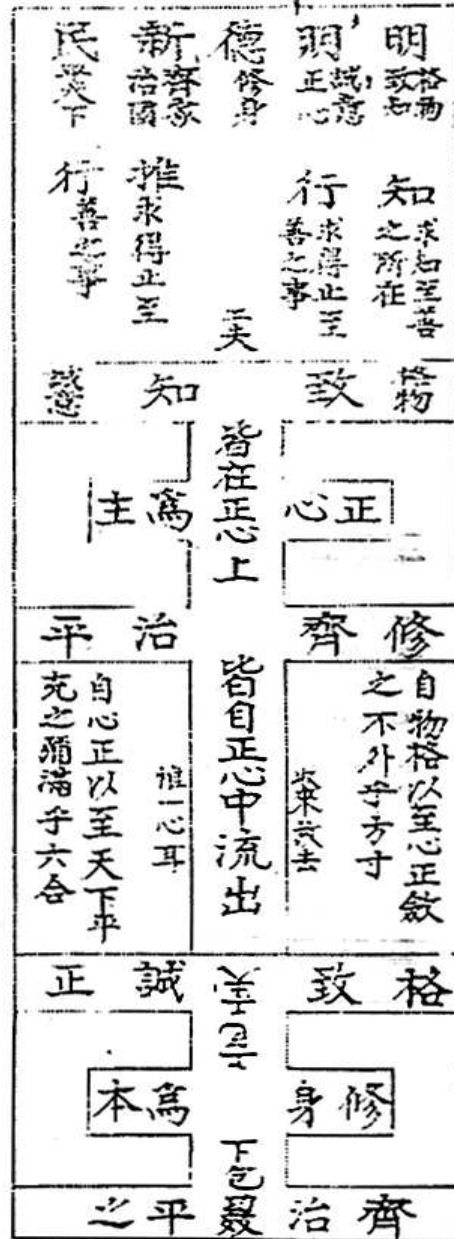
<그림 3-2> 신응태의 「신독공부도」

두 번째 특징은 '의미에 따른 선'이다. 도설에서 구역 나눔이나 내용의 구별에 선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신응태는 의미에 따라 선의 형태를 변형하였다. 선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것과 여백을 남겨두는 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차이를 둔 것이다. 몇 개의 도상을 예시로 살펴본다.



〈그림 3-3〉 신응태의 「성의자수도」

條目分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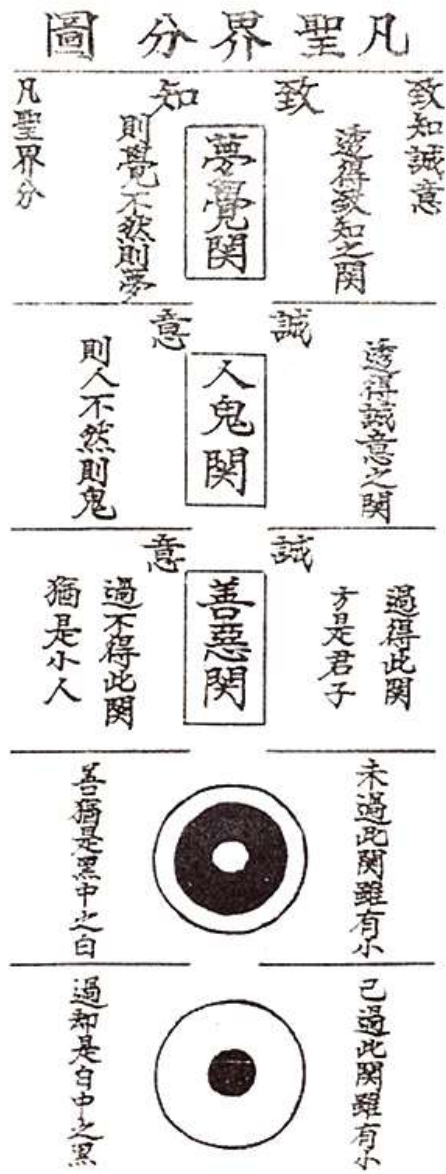


〈그림 3-4〉 신응태의 「조목분배도」

위의 두 도설 중 「誠意自修圖」를 보면, 신응태는 『대학장구』 「성의」장의 여러 주제어들을 도표 중앙에 세로로 배열하고, 주제어에 해당하는 자신의 설을 좌우에 적어 넣었다.⁶⁶⁾ 이때 일부러 주제어마다 선을 그어서 구별해놓지 않았다. 보통은 각 주제어마다 선을 그어 구역이 다름을 표기한다. 그런데 선을 생략함으로써 주제어 부분과 좌우의 도설 영역을 구분시켰고, 동시에 도표 전체에서 주제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이와는 달리 좌우의 설명 부분은 내용에 따라 선을 그어 구별시켰다. 만약 주제어들도 설명 부분처럼 내용에 따라 선을 그었다면, 도상을 보는 사람이 중앙의 주제어부터 읽지 않고 우측부터 읽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주제어를 먼저 본 후,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읽지 못하고, 우측의 설명을 먼저 읽은 후에 중앙의 주제어를 보고, 다시 좌측의 설명을 마저 읽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신응태는 과감히 선을 생략함으로써 주제어 영역을 드러내고 강조하여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도표 하단의 설명 부분은 선을 그어서 도표와 도설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시켰다. 이렇게 주제어들을 구분하는 선을 생략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條目分配圖」에서도 볼 수 있다.

66)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09쪽.



〈그림 3-5〉 신응태의 「범성계분도」

또 다른 유형으로 여백을 둔 선이 있다. 위의 「凡聖界分圖」에서는 정중앙에 세로로 써진 夢覺關, 人鬼關, 善惡關, 그리고 하단의 원 두 개를 각각 한 중간에 여백이 있는 선으로 나누었다. 몽각관은 주희가 '치지' 공부를 비유한

말로, 꿈을 꾸느냐 깨느냐를 가르는 관문을 뜻하며, 인귀관은 '성의' 공부로서 善人이 되느냐 惡人이 되느냐를 가르는 관문을 의미한다. 李穡⁶⁷⁾의 저서 『牧隱詩藁』에 실린 '有感' 시에는 '내가 처음엔 이르기를 군자로서, 장차 인귀관을 뚫으리라 했더니, 중간에는 의리와 이곳이 뒤섞여, 소인과 군자의 중간이 돼버렸고...' ⁶⁸⁾ 라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心經』 「성의」장에서는 '성의는 바로 인귀의 관문이니, 이 한 관문을 통과하여야만 바야흐로 진취할 수가 있다.' ⁶⁹⁾라고 하였다. 林泳⁷⁰⁾의 『滄溪集』 9권에서도 '외숙에게 쓴 편지'에 '저는 아직도 인귀관과 몽각관을 지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학문이 부족함을 말하는 대목이 있다. ⁷¹⁾ 이로써 신응태가 「범성계분도」에서 선의 중앙에 여백을 둔 것은 유학자가 학문함에 있어 몽각관에서 인귀관으로, 인귀관에서 선악관으로 뚫고 나아가야 하는 관문의 의미이며,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의적 기능으로서의 선이 있다. 도설은 글보다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기능이자 목적이다. 도설을 빠르게 파악하려면, 도상은 가능한 간결해야 한다. 신응태의 도설은 글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일부러 선을 생략하거나 추가하였다.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혈구도」에서 나타난다. 내용적으로 구분되는 곳이 아닌데도 선을 통해서 간결한 도상을 만들려고 한 것은 '도설의 효용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부분은 아래에 이어지는 「혈구도」 분석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그 밖에 분속개념을 나타낼 때는 상위 단어의 아래에 하위 단어를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⁷²⁾

67) 본명은 李穡. 고려 후기 학자로 본관은 韓山, 자는 穎叔, 호는 牧隱이다.

68)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3.03.10, 『牧隱詩藁』, “始也謂君子將透人鬼關 中焉雜義利 小人君子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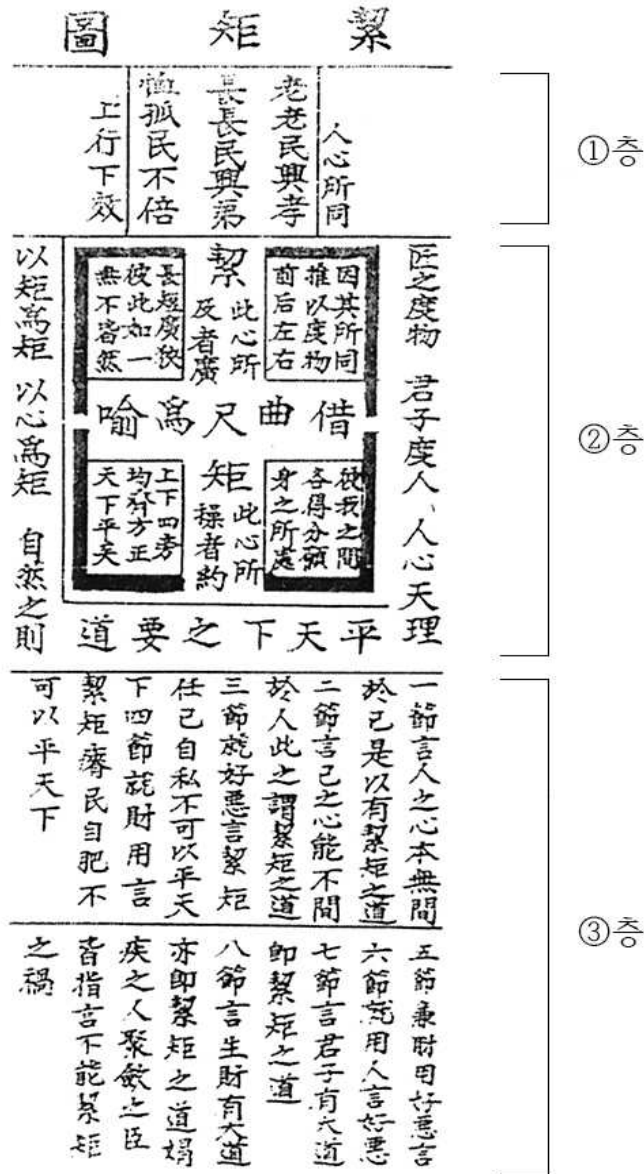
69)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3.03.10, 『心經』, “誠意是人鬼關 過此一關 方會進.”

70) 조선후기 유학자로 李端相과 朴世采의 문인이다. 본관은 羅州. 자는 德涵. 호는 滄溪이다.

71)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3.04.10, 『滄溪集』, 「書」, “與趙叔成卿”, “歲月飄忽…尚未透過人鬼夢覺之關.”

72) 「조목분배도」 상단에 첫 번째 '명' 아래로는 명에 해당하는 격물치지와 지를 적었고 두 번째 '명' 아래로는 성의정심과 행을, '신민'의 아래로는 그에 해당하는 제가·치국·평천하와 추

3. 「絜矩圖」 분석



〈그림 3-6〉 신응태의 「혈구도」

행을 적어, 분속관계를 나타냈다.

신응태의 「혈구도」는 내용의 구분에 따라 3층 구조이다. 여기서 2층이 요지이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각 층⁷³⁾별로 살펴본다.

1) 1층

1층은 가운데 네모 권역이 중심부이다. 『대학』 전10장 1절 전문에서 핵심 어구로 ‘老老民興孝, 長長民興悌, 恤孤民不倍’를 뽑아 배치하였다. 네모 권역 좌우로는 1절 주석에서 따온 ‘人心所同’, ‘上行下效’를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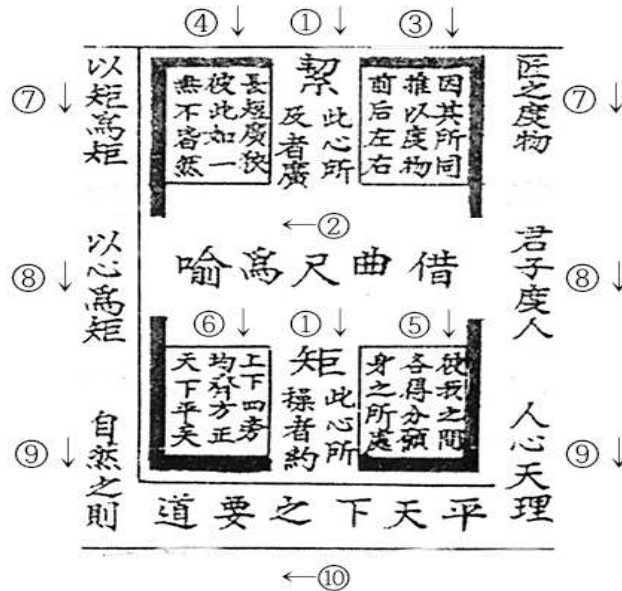
1층은 혈구지도의 기본적인 원리·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에 윗사람이 상대방이 처한 바를 헤아려 대우하면 아랫사람이 본받는 작용[효·제·불배]이 일어난다.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미루어 나간다. 따라서 1층의 내용은 ‘기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2층

2층은 저자가 가장 중시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배치한 곳이다. 2층 구조의 순서는 먼저 중앙의 세로 [絜·矩] → 중앙의 가로 [借曲尺爲喻] → 각 사방 모서리의 작은 네모 권역 [因其所同·推以度物·前后左右, 長短廣狹·彼此如一·無不皆然, 彼我之間·各得分願·身之所處, 上下四方·均齊方正·天下平矣] → 가장 외곽의 右左 [匠之度物·以矩爲矩, 君子度人·以心爲矩, 人心天理·自然之則] → 2층의 가장 하단 가로의 ‘平天下之要道’이다. 2층의 문구들은 『대학장구』와

73) 유권중,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 집문당, 2020, 52쪽 참조, 본고에서는 하나의 도상을 ‘층’이라는 용어로 나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서 사용된 도설 용어를 따른 것이다.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에 의하면 ‘층’은 여러 학자들의 그림 해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몇 개의 분리된 도형이 세로로 결합된 도상에서 사용되었다. 예로, 金幹은 「答申明允」에서 “상변의 五層圖는 옳은 듯한데 하변의 四層圖는 옳지 않은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尹衡老는 「與柳晦之」에 실린 「心學健順五常三層圖」에 대해서 “이 그림은 심과 건곤 오상을 삼층의 그림으로 만들었으니…”라고 하였고, 유중교는 「太極圖說大指」의 첫머리에 “도의 제일층 태극권은 주역에서 말하길…”이라고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도상의 상단부를 1층으로 정하였음을 밝혀둔다.

『大學章句大全』에서 가져왔는데, 전문이 아닌 주석만으로 구성한 것이 특이하다. 글귀 및 순서를 그림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7> 신응태의 「혈구도」 확대

순서	내용
①	絜[此心所及者廣], 矩[此心所操者約]
②	借曲尺為喻
③	因其所同, 推以度物, 前后左右
④	長短廣狹, 彼此如一, 無不皆然
⑤	彼我之間, 各得分願, 身之所處
⑥	上下四方, 均齊方正, 天下平矣
⑦	匠之度物, 以矩為矩
⑧	君子度人, 以心為矩
⑨	人心天理, 自然之則
⑩	平天下之要道

<표 1> 신응태의 「혈구도」 2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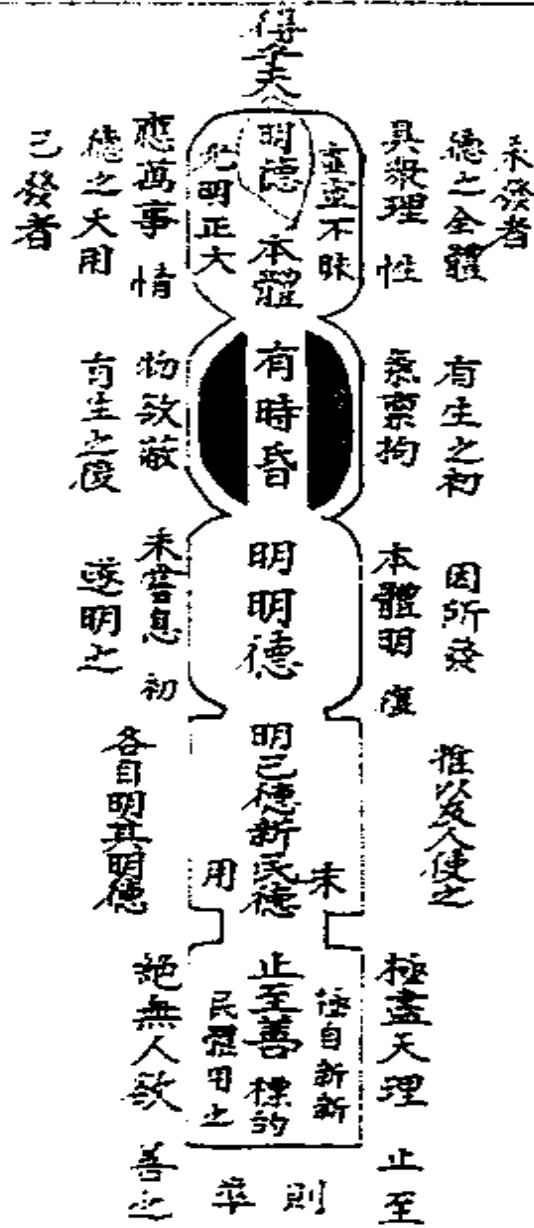
〈그림 3-8〉 곡 척⁷⁴⁾

2층에서 진하고 굽게 칠해진 네모 권역은 완전한 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ㄱ’과 ‘ㄴ’의 모양이 모서리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曲尺’을 표현한 것이다. 곡척은 직각을 재기 위해 만든 자인데, ‘ㄱ’자 모양이라서 기억자자, 곱자, 규구 등으로도 불린다. ‘혈구지도’에서 ‘구’가 곡척이다. 진하게 칠한 곡척의 형상화로써 곡척이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표현했다. ‘곡척’처럼 어떤 단어나 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磨鏡復明圖」와 「綱領合一圖」에서도 나타난다. 아래의 「강령합일도」에서는 ‘有時昏’을 적고, 글자의 주변을 검게 칠했으며 「磨鏡復明圖」에서도 ‘먼지로 인해 거울이 흐려졌다.’⁷⁵⁾는 도설에 따라 거울의 기호인 원을 검게 칠했다. 그러면서도 만물의 이치인 本性은 본래 밝고 順善하며 사라지지 않고 恒常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정중앙을 칠하지 않고 희게 두었다.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므로 수양을 통해 본래의 밝고 순선함을 회복할 수 있음까지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신응태는 글을 이미지화 할 때, 명암을 통해 세심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 검색일 2023.0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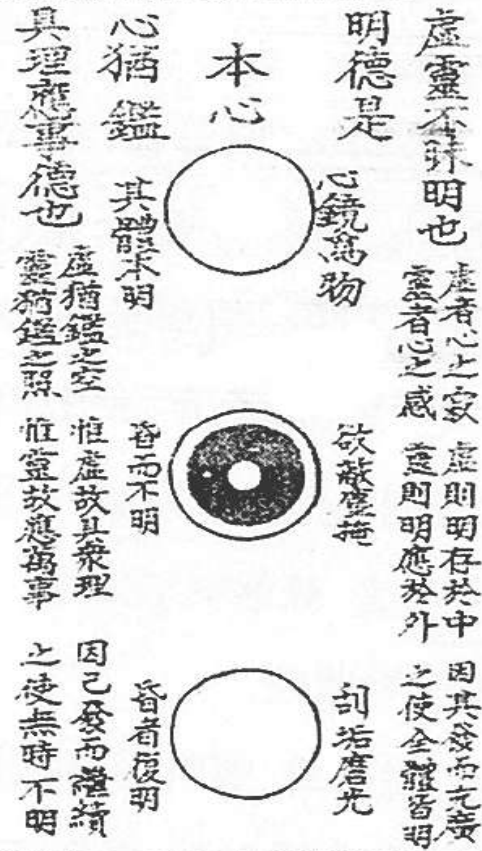
75)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00쪽.

綱領合一圖



〈그림 3-9〉 신응태의 「강령합일도」

磨鏡復明圖



明德謂本有此明德也其
 良知良能本自有之只為
 私欲所蔽故暗而不明所
 謂明明德者求所以明之
 也譬如鏡焉本是箇明底
 物緣為塵昏故不能照須
 是磨去塵垢然後鏡復明

〈그림 3-10〉 신응태의 「마경복명도」

굵고 진한 곡척 형상의 외곽으로 ‘ㄴ’ 모양의 얇은 선이 한 개 있다. 진하게 칠해진 곡척은 사물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글의 구역을 구분하는 역할도 보조한다. 따라서 얇은 선을 외곽에 한 번 더 둘러, 곡척의 안과 바깥의 글들을 명확하게 구분시켰다. 이때, 완전하게 둘러치지 않고 우측 부분은 공백으로 두었다. 이 여백⁷⁶⁾은 강조의 효과를 주고, 글이 많은 도설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해당 구역의 글자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시선의 주목도를 높이고,⁷⁷⁾ 각 모서리의 작은 글자가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2층은 도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배치하는 중앙 부분이므로 시선의 주목도가 높아야 한다. 또, 각 모서리의 글은 작은 크기로 쓰여 있지만 도설 전체에서는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잘 보이고 읽힐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신응태는 이런 목적에서 의도적인 여백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편의적 기능을 위한 선의 생략’이다.

2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심’이다. 심은 ‘장인의 자’와 같은 ‘척도’의 의미이므로 矩와 度 역시 심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심의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더 찾아보면 曲尺, 則 등 총 96개 글자 중에서 15개에 이른다.⁷⁸⁾

2층의 내용 또한 심에 관한 설명이 주이다. 가장 먼저 ‘이 마음이 미치는 바, 이 마음이 요약되는 바, 그 같은바[누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물의 법도로[심] 미루어 나감, 장인이 사물을 자로 헤아리듯’ 등 모두 심에 관해 설명한다. 이 같은 내용성과 글자의 빈도수를 봤을 때, 신응태가 혈구지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준칙의 ‘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심은 일

76) 도설은 글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화가가 그리는 일반적인 그림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백이라는 표현 기법은 동양에서 글과 그림 모두에 활용되던 공통된 표현 기법이다.

77) 오세권, 「한국화의 ‘몽타주’ 표현에서 나타나는 ‘여백’ 연구 - 화면 분할의 ‘몽타주’ 표현을 중심으로 -」, 『조형예술학연구』 Vol.6, 2004, 270-272쪽, “...여백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시각적 여운을 살려내는 미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백은 표현된 이미지와 호응하면서 생명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에 의해 더욱 명백해지는 것과 같이 여백을 통해서 작품은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작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확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생략은 드러난 대상들에 생명성을 부여해준다. 곧 부재를 통하여 존재를 더욱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78) 심을 뜻하는 단어들: 읽는 순서의 번호와 해당 단어 ①心, 矩, 心, 所, ②曲尺, ③所同, 度, ⑦矩, 矩, ⑧心, 矩, ⑨心, 天理, 則, ⑩要道. (<표 1> 신응태의 「혈구도」 2층표 참조)

반적인 마음이 아니다.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明德이자 本性的 ‘심’으로, ‘정심’을 의미한다. 즉, 신응태가 생각하는 혈구지도의 핵심은 정심이다. 이는 ‘혈구의 정치의 도리는 정심과 수신의 도리를 미루어 행하는 것’⁷⁹⁾이라는 『大學章句大全』의 소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곡척’의 기호를 모서리마다 배치한 것은 ‘사방의 방정한 형태’의 표현으로 추론된다. 곡척은 네모반듯하게 만드는 도구이고, 이것을 모서리마다 배치하면 ‘사방의 네모반듯한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사방의 방정한 형태’는 곧, 평천하이다. 이 ‘평천하’[진한 네모권역]의 중앙에는 혈구와 그 뜻, 의미를 적어서, ‘평천하의 요도는 혈구’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각 모서리에 혈구지도를 통해 평천하에 이르는 내용인 1절·2절의 주석을 요약해서 적어놓았다. 네모난 ‘평천하’의 외곽으로는 ‘혈구지도의 의미와 원리’를 한 번 더 간략하게 표기했다.

앞에서 설명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곡척의 기호 4개로 평천하를 표현하고, 그것의 안쪽 중앙에 혈구와 그에 관한 설명을 적어서 평천하의 요도는 혈구에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혈구에 관한 설명은 주로 ‘준칙적 심’에 관한 것으로 표기해서, 혈구의 핵심은 정심이라는 것까지 표현했다. 이로써 신응태가 해석한 전10장의 요지는 ‘평천하의 요도는 혈구이고, 혈구의 핵심은 정심이다.’가 된다.

여기서 ‘사방의 방정한 형태’의 도식화는 조호익의 「혈구도」보다 한층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층 글의 내용은 ‘혈구의 의미와 평천하의 원리’이다. 이것은 전10장의 요지이자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2층은 ‘핵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3) 3층

79) 『大學章句大全』, 「傳10章」, 1節 疏註 “絜矩不是外面別有個道理 只便是前面正心修身底 推而措之.”

3층은 신응태 도설의 특징 중 ‘도설을 도표에 포함’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전10장의 23개 구절을 8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의 요지를 적어놓았다. 단락을 나누는 것은 운봉 호씨⁸⁰⁾의 설에 따랐으며, 범위와 요지는 아래의 표로 대신한다.⁸¹⁾

단락	범위	요지
제1단락	제1절	言所以有絜槩之道
제2단락	제2절	言此之謂絜槩之道
제3단락	제3절-5절	就好惡上言絜槩
제4단락	제6절-11절	就財用言絜槩
제5단락	제12절-13절	當連上文善興不善者看 … 兼財用好 好惡言也
제6단락	제14절-17절	就用人言
제7단락	제18절	不分言好惡興財用之絜矩 但言君子有大道
제8단락	제19절-23절	生財大道 亦即絜槩之道

<표 2> 운봉 호씨 단락표

3층 구역을 반으로 가르는 횡선이 하나 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제1단락-제4단락의 요지가 있고, 하단에는 제5단락-제8단락의 요지가 있다. 정확히 절반의 위치에 선이 있다. 그런데 횡선의 위치로써 나눌만한 내용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단지 3층은 전체의 요지를 배치한 곳이기엔 글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선으로 나눈다면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배치했다고 생각된다. 이 선 역시 편의적 기능을 위해서 활용된 것으로 추론된다.

3층은 전10장 전체를 8단락으로 나누고 각 요지를 기술한 것으로 ‘전체의

80) 원나라 徽州 婺源 사람으로 자는 仲虎고, 호는 雲峰이다. 주희의 문인이다.

81) 운봉 호씨 단락표 출처: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21쪽.

요지'가 된다.

총 정리하면 신응태는 「혈구도」를 1층은 '기본', 2층은 '핵심', 3층은 '전체의 요지'로 구성했다.

4. 소결

도상의 중단부분은 저자가 강조하는 곳이자 도상에서도 중심의 위치로서 '핵심'에 해당되는 곳이다. 신응태는 이곳에 곡척의 기호로 평천하를 표현하고 그 중심에는 '혈구의 뜻과 의미', '평천하에 이르는 혈구지도의 원리'와 같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배치했다. 이는 전10장의 주제이자 요지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심'이며, '곡척', '구'와 같은 심의 의미를 지닌 단어까지 포함하면 96개중 15개의 단어가 '심'이 된다. 내용에서도 준칙으로서의 심에 관한 설명이 주인데, 척도가 되는 심은 바로 '정심'이다. 종합하면 신응태 「혈구도」의 요지는 '평천하의 요도는 혈구이고, 혈구의 핵심은 정심이다.'가 된다. 이는 수신과 정심을 중시한 당시의 분위기와 같고, 『대학장구대전』의 소주와도 일치한다.

이 외에도 「혈구도」가 실린 저서와 기타 「대학도설」들의 제목을 보면 정심을 강조하는 신응태의 학문관을 알 수 있다. 신응태의 『사서제요도설』은 '사서의 주요한 부분을 그린 도설'이라는 제목이며, 이에 따라 작성한 도설들은 「用學淵源道」, 「誠敬學淵源圖」, 「大學入德門圖」, 「강령합일도」, 「마경복명도」, 「조목분배도」, 「격물치지도」, 「성의자수도」, 「범성계분도」, 「신독공부도」, 「主敬工夫圖」, 「綱條緊要圖」이다. 이 중에서 「연원도」나 「조목분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목이 自修와 연관된 것이다.

신응태는 졸하는 그 해까지 '동서분당부터 신임사화까지 피차 邪正得失의 본말을 논변한 『士論是非屋下私談』' 1권을 저술⁸²⁾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로써 당시의 사회와 저자의 학문관이 「혈구도」 제작 동기의 요인이라는 것

82) 김용남, 「용애 신응태의 삶과 시세계」, 『충북학』 제21집, 충북학연구소, 2019, 47쪽.

을 알 수 있다.

신응태는 「혈구도」를 총 3층 구조로 설정하여 1층은 기본적인 내용, 2층은 핵심, 3층은 전10장 전체의 요지를 담았다. 어떤 것의 기본과 핵심, 그리고 전체의 요지를 파악한다면 전부를 이해한 것과 다를 없을 것이다.

핵심 요지와 전체를 동시에 담고 있는 구성이 독특한 도설로, 곡척의 형상화를 이용해서 강조의 효과를 준 점이 돋보인다.

IV. 이형상의 「絜矩圖」 분석

1. 생애 및 학문관

李衡祥은 조선후기 유학자로 본관은 순주, 자는 仲玉 호는 瓶窩·順翁 2개이다. 생몰 연대는 1653년에서 1733년이며 효령대군의 10세손으로 李師閔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李長馨, 아버지는 진사 李柱厦이다. 모친은 파평 윤씨로 윤세구의 딸이다. 그는 1653년 인천 소암촌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孝行이 뛰어난 등 학문적 재능과 어른스러운 성품으로 주위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다.⁸³⁾

25세인 1677년에 司馬試에 합격해 생원이 되고, 1678년인 26세 때 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肅宗 6년인 1680년 28세에 別試 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1681년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⁸⁴⁾

戶曹佐郎, 星州牧使, 東萊府使, 楊州牧使, 慶州府尹, 濟州牧使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나 대체로 지방 牧民官으로서 부임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나 재직하는 곳마다 善政과 教化를 베풀고 각종 弊端을 없애며 民生을 살핀 덕분에 功德碑가 세워지는 등 많은 治績을 남겼다. 靈光郡守를 사임한 이후로는 영천에 浩然亭을 짓고 은거하였다. 성리학자의 삶을 살갯음을 결심하고 관직을 사양하면서 후학 양성 및 저술에 전념하였으나 때때로 관직 요청을 수락하기도 하였다. 1733년 81세로 생을 마쳤으며 1796년에는 清白吏에 올랐다.

이형상의 관직은 주로 지방의 목민관이었다. 兩亂이후 政爭과 士禍, 과거제도의 문란, 세금과 부역의 가중, 서구와의 접촉, 양명학과 고증학이 들어오는 등 당시 사회는 전반적으로 혼란기였다.⁸⁵⁾ 그로 인한 민생의 피해함은 심각했

83) 박민철, 「瓶窩 李衡祥의 著述과 家藏 文獻의 書誌的 分析」,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11쪽.

84)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http://rfo.co.kr/>), 검색일 2023.03.15.

다. 이형상은 부임하는 곳마다 지역의 악습을 없애고 전제 개혁이나 과도한 세금 부역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교나 서당을 부흥시켜 풍속 교화에도 힘썼다. 이런 목민관으로서의 경험과 기존의 성리학자의 면모가 합쳐져서 이형상의 실학적 특색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형상은 그 출신과 주변 인물들을 볼 때, 서인 혹은 분리 후의 소론계로 보이지만 학풍은 남인에 가깝고, 또 영천에서 남인들과 많은 친교를 맺기도 했다.⁸⁶⁾ 그 중 鄭葵陽⁸⁷⁾은 퇴계학에 전념하면서도 학파를 초월한 교류⁸⁸⁾를 한 인물이기에 이형상 역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형상의 「新民圖」에서는 柳崇祖⁸⁹⁾의 사상이 나타나고, 직접 저술한 「經書採綱」에서는 ‘羅欽順과 王陽明의 설은 상세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만 그 주장은 멀지 않고, 盧守愼의 글이 주자와 다르더라도 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경전의 올바른 뜻을 밝히는 것에 작은 차이는 도를 손상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는 등⁹⁰⁾ 道學者로서 성리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이형상은 지리, 자학, 역학, 경학, 악학, 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책을 집필했다. 손자 晚松이 간행한 『瓶窩集』 18권 외에 『遯筮錄』·『樂學便考』·『강도지』·『樂學拾零』·『先後天』 등 142종 326책의 저술과 3,886수의 시⁹¹⁾를 남겼다.

2. 이형상 「대학도설」의 특징

85) 박민철, 「瓶窩 李衡祥의 著述과 家藏 文獻의 書誌的 分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11쪽.

86) 박민철, 같은 곳.

87) 조선후기 학자로 생몰 연대는 1667-1732년이다. 자는 叔向, 호는 簾叟이다. 李玄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88) 최재남, 「병와 이형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Vol.13, 한국한시학회, 2009, 115쪽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3. 06.15.

89) 조선 전기 학자로 본관은 전주, 자는 宗孝, 호는 眞一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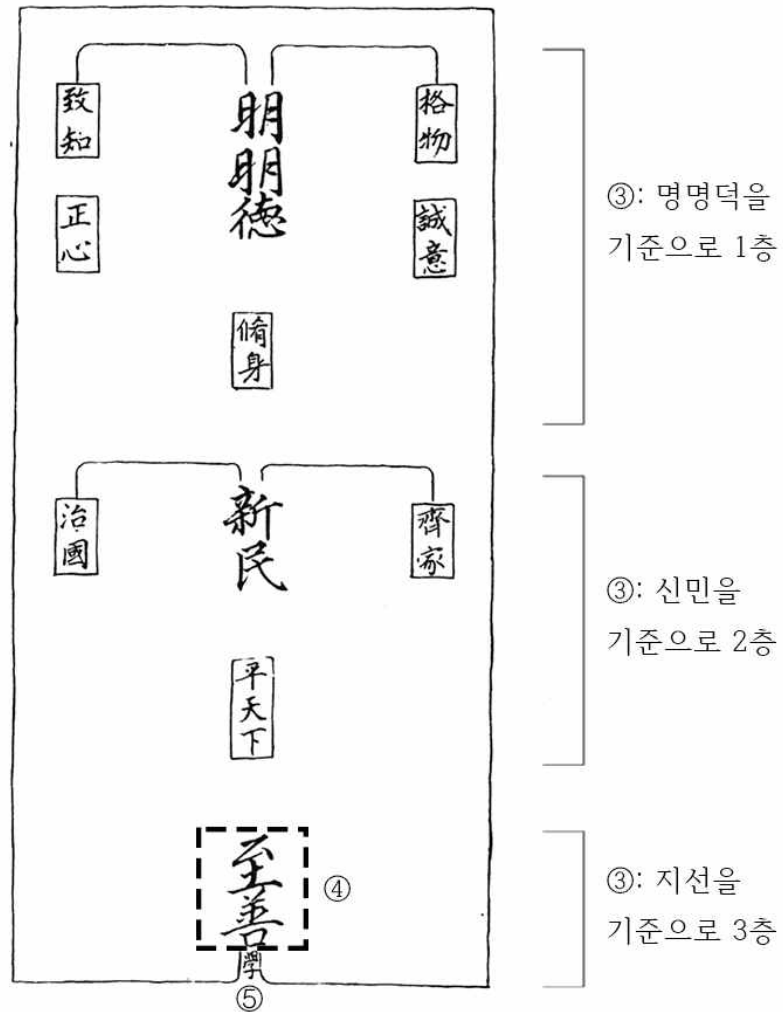
90) 이형상·박문호·김용걸 등, 『韓國思想家的 새로운 發見 : 瓶窩 李衡祥·壺山 朴文鎬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97쪽.

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3.04.20.

이형상은 삼강령 팔조목에 관한 각각의 도상을 남겼다. 특히 전10장의 「평천하도」를 작성하고도 별도로 「혈구도」를 그렸다. 조선시대에 「평천하도」와 「혈구도」를 같이 제작한 경우는 이형상이 유일하다.⁹²⁾

「대학도설」들을 살펴본 후 파악한 이형상 도설의 특징은 ①강령과 조목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의 이치로 이해하여 도식화하고, 이것을 통해 先後·本末을 나타낸 점, ②뿌리가 되는 강령을 큰 글씨로 도표의 정중앙에 縱으로 배치한 점, ③강령을 기준으로 3층 구조이며, ④도설마다 준칙으로서 지선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⑤도설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큰 네모 권역으로 테두리 쳐서 묶은 후, 要訣되는 단어를 가장 하단에 적어 놓는 점이다. 위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92) 『조선시대 대학도설』에 실린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4-1〉 이형상의 「삼강팔조도」

이형상의 「대학도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중앙의 큰 글자와 선의 관계이다. 도표의 중앙부분에 큰 글씨로 3개의 단어[明明덕, 신민, 지선]가 상하로 적혀있다. 이것은 강령이다. 각각의 강령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3층 구조가 된다. 그리고 강령으로부터 좌우로 두 개의 선이 뻗어 나가서 네모 권역과 연결되는데, 네모 권역의 단어는 모두 조목이다. 「三綱八條圖」의 설명에서

이러한 도식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강령과 조목이 그물에서는 각기 다르지만 강령이 들리면 조목은 펼쳐지고, 뿌리와 가지가 나무에서는 구별되지만 뿌리를 복돋으면 가지까지 통한다. 이것이 이치이고 형세이다. … 수신으로부터 말하면, 명명덕은 성의·정심의 강령이 되고, 격물·치지는 그 작용이 된다. 평천하에 나아가 논하면 치국·평천하는 신민의 조목이 되고, 제가가 그 본체가 된다. 미루어 끝까지 궁구하면 지가 되기도 하고 행이 되기도 하니, 지어지선이 명덕·신민의 총결이 되고 명명덕은 다시 대학 한 책의 핵심이 된다. 이것이 어찌 체·용이 서로 필요로 하고, 지·행이 서로 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⁹³⁾

강령과 조목은 뿌리와 줄기의 관계인데, 이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강령은 굵은 나무 기둥처럼 도표의 중앙에 상하로 크게 쓰여 있고, 조목은 마치 나무 기둥으로부터 펼쳐지는 나뭇가지의 모양새로 연결돼 있다. 뿌리를 복돋으면 가지까지 통하고, 굵은 나무 기둥이 없다면 잔 나뭇가지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강령이 先이자 本이고 조목은 後·末이 된다.

네 번째 특징은 각 도설마다 3층 위치에 배치된 ‘至善’이다. 지선에 대한 이형상의 생각은 「止於至善圖」의 도설에서 알 수 있다.

“사물은 극이 있지 않음이 없다. … 심지어 생각이 밝음에 대해서, 예가 절도에 대해서, 음악이 조화에 대해서도 모두 각기 지선의 경지가 있다. 미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가장 신령스러운 사람에 있어서이겠는가.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지극히 큰 도에 있어서이겠는가.”⁹⁴⁾

“격물은 치지하는 것이지만 성의·정심에 이르지 않으면 극이 아니다. 수신은 제가하는 것이지만 치국·평천하에 이르지 않으면 극이 아니다. … 학문이 엄밀

93)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37쪽.

94) 최석기·강현진, 같은 책, 147-148쪽.

하고 굳세고 빛나고 성대함에 미치지 못하고 은택이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고 친한 이를 친히 하는데 미치지 못하면, 비유컨대 산을 만들다 아홉 길을 채우지 못하고 우물을 파다가 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선왕이 즐겁게 해준 것을 즐거워하고 선왕이 이롭게 해 준 것을 이롭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⁹⁵⁾

도표마다 지선을 표기하는 것은 이형상 「대학도설」의 특징적인 부분이다.⁹⁶⁾ 이형상은 삼강령과 팔조목에 있어서 단순히 그것을 실천하는 정도에 이를 것이 아니라 지극한 경지인 지선에까지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선은 준칙으로서 도설마다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도표에 표기된 모든 단어를 하나의 큰 네모 모양으로 테두리 치고, 요결 단어를 선정하여 도표의 맨 아래에 적었다. 그리고 도표에 해당하는 설의 마지막 부분에 요결 단어가 들어가거나 요결 단어와 연관이 있는 내용의 문장을 적어놓는다.⁹⁷⁾

정리하면 이형상의 도식화 방식은 이렇다. 전10장의 23개 구절에서 강령이 될 주제어를 뽑아 큰 글씨로 중앙에 배치하고, 다시 구절에서 조목이 될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주제어와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도표의 모든 단어를 네모 형태의 큰 테두리로 묶은 후, 요결되는 글자를 가장 하단의 중간에 표기한다. 그리고 조목인데 강령의 성격을 가질 때는 그 의미에 따라 강령의 상·하·좌·우에 배치한다. 이상이 이형상 「대학도설」의 도상학적 특징이다.

단, 「지어지선도」는 3층에 지선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혈구도」는 유일하게 3층 구조가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이형상의 「대학도설」은 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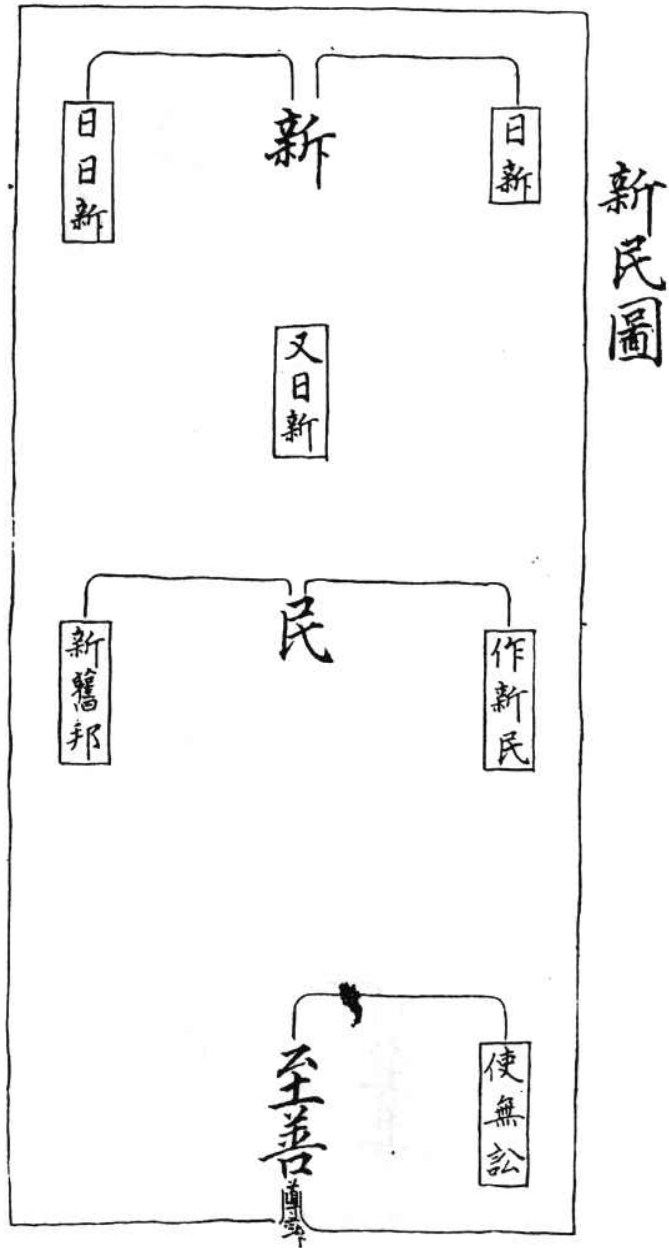
이하 본 논문의 이형상 장에서는 강령이 되는 단어는 ‘주제어’로, 조목이

95)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48-1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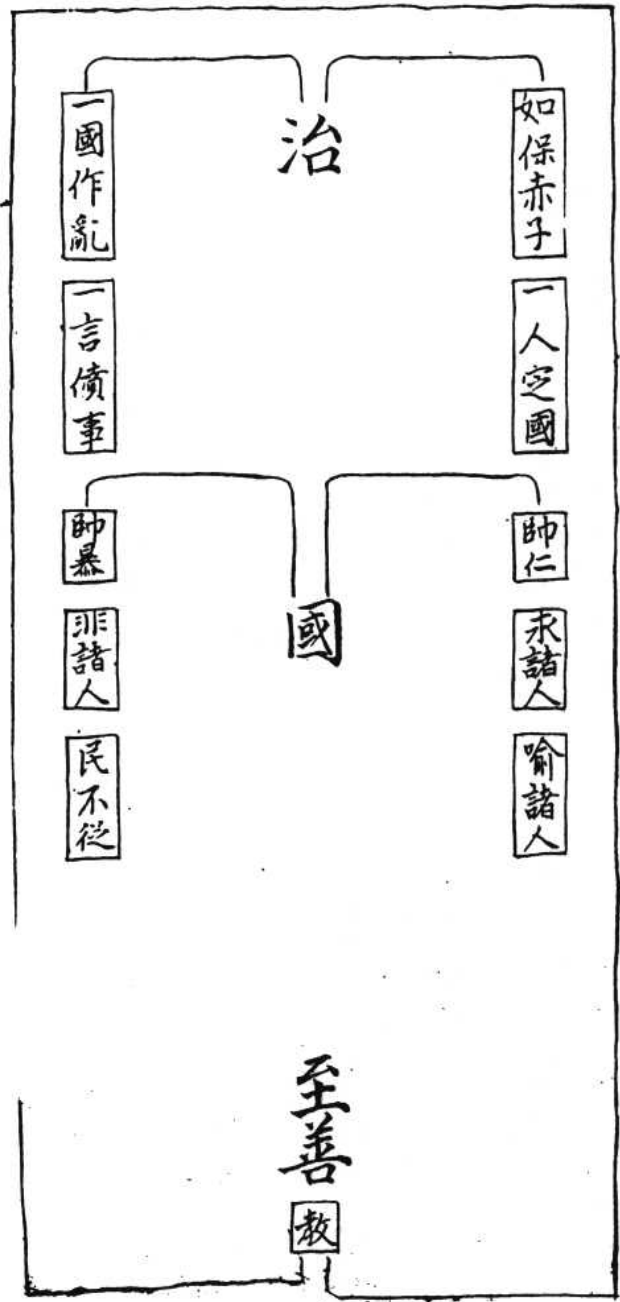
96) 최석기·강현진, 같은 책, 143쪽.

97) 최석기·강현진, 같은 책, 139쪽, 「삼강팔조도」의 경우, 도설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학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총 정리하였으며 도표에는 요결 단어로 ‘學’자를 표시해두었다.

되는 단어는 '핵심 단어'로 통칭하겠다.



〈그림 4-2〉 이형상의 「新民도」



〈그림 4-3〉 이형상의 「치국도」

3. 「絜矩圖」 분석

앞에서 주지했듯이 23개의 구절에서 주제어와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주제어는 중앙에 배치하고, 핵심 단어는 좌우에 놓아 선으로 연결시켰다. 순차적으로 도설마다 표기하는 지선과 요결 단어를 제외하면 「혈구도」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은 전10장 안에서 추출하였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된다.

1) 구조적 특징

강령	핵심 단어	강령의 해당 句節	핵심 단어의 해당 句節
치[부·모]	노노, 장장, 흘고	1절	1절, 3절
국	준명, 대도, 인, 토, 신, 벽, 득, 실, 애, 오, 거, 퇴	1절	4절, 5절, 6절, 15절, 16절, 18절
평	상, 하, 전, 후, 좌, 우	2절 주석	2절 주석
덕[심·성]	선, 악, 충, 신, 혁혁, 휴휴	7절	4절, 11절, 14절, 17절, 18절
재	생, 식, 위, 용, 취, 산, 발신, 발재, 부고유재, 부혹취렴, 부혹우양, 부찰계돈	7절	9절, 19절, 20절, 21절, 22절
태	외본, 내말, 쟁탈, 모질, 패입, 패출, 호오, 오호, 교태, 재해	14절	8절, 10절, 14절, 17절, 18절, 23절
지선[의·이]			22-23절
그 외	핵심 단어		
요결 단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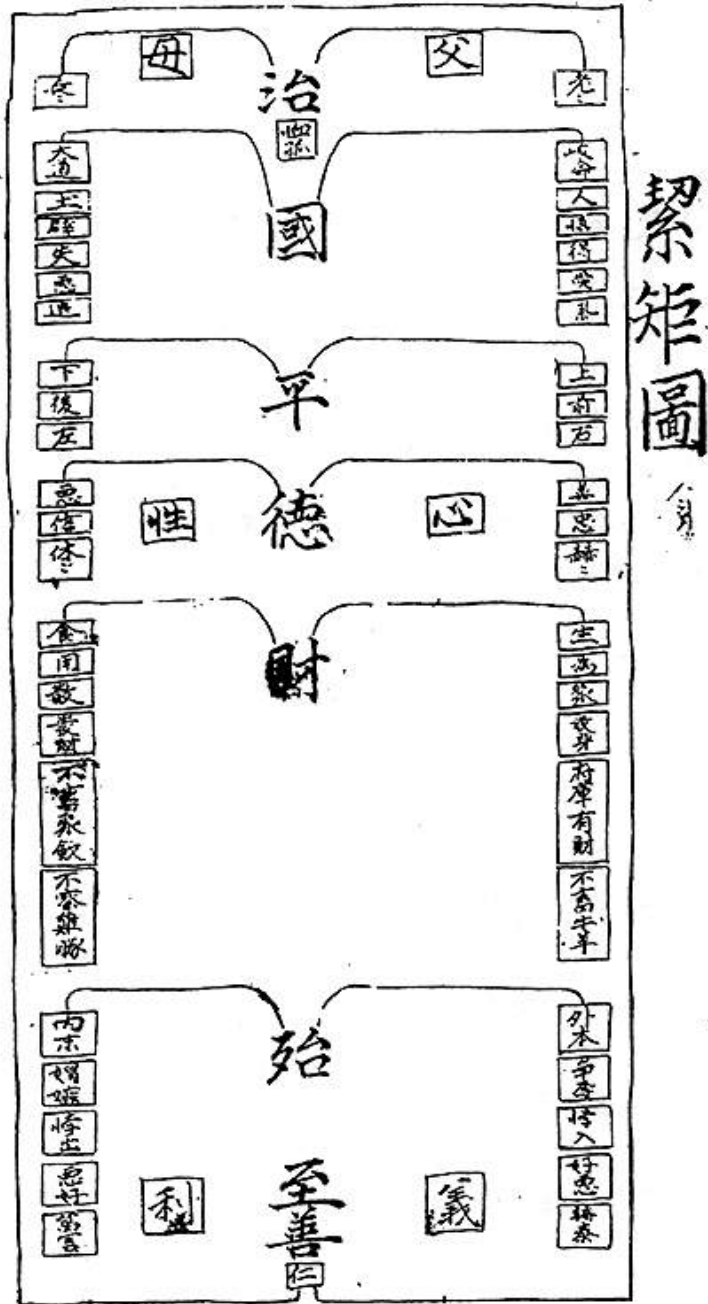
<표 3> 이형상의 「혈구도」 주제어 및 핵심 단어의 출처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이형상 「혈구도」의 독특한 특징 중 첫 번째는, 4절, 11절, 17절, 18절, 22절, 23절에서 여러 개의 핵심 단어를 추출한 후 서로 다른 주제어와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4절의 경우, ‘국’과 ‘덕’의 강령에서 중복으로 활용되었다. 국에서는 신·벽, 덕에서는 혁혁이라는 단어를 조목으로 쓴 것이다. 핵심 단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겹치지 않지만, 구절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복으로 사용된 셈이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서 뽑은 핵심 단어가 상단 [國]에 있고, 8절의 핵심 단어는 하단[殆]에 있는 등 구절의 순번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구절도 있는데 2절, 12절, 13절이다. 12절의 경우 핵심 단어로 ‘寶善’을 뽑아 「평천하도」의 지선 부분에 조목으로 배치한 반면, 「혈구도」에서는 제외시켰다. 이런 방식은 다른 「혈구도」에서 보기 힘든 형식이다. 보통 도설은 장의 전체를 개괄하여 그 논리 구조와 체계를 드러내거나, 핵심 원리 또는 요지를 표상하려는 의도로 작성된다. 장의 전체 논리 구조를 드러내는 도설은 도식화할 때, 어떤 구절을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10장을 5단락의 구조로 파악하고 도식화한다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의 단락이고, 이 1절을 다시 다른 단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형상은 여러 단어를 뽑아 해당 구절을 중복되게 활용했다. 이것은 전10장 전체 내용의 논리 구조나 체계를 밝히는 도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원리나 요지를 표상하는 유형으로 보기도 애매하다. 2절⁹⁸⁾, 12절, 13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절들을 전부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핵심 단어를 강령의 주변에 배치하여 마치 강령의 강령처럼 활용한 점도 독특하다. 치에서는 ‘부’와 ‘모’를 배치했고, 덕에서는 ‘심’과 ‘성’을, 지선에서는 ‘의’와 ‘이’를 나란하게 배치했다. 이 부분은 강령을 순차대로 살펴볼 때 후술한다.

98) 2절의 전문 대신 주석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강령의 분석



〈그림 4-4〉 이형상의 「혈구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7층 구조이다. 「혈구도」에서 강령이 되는 주제어는 ‘治, 國, 平, 德, 財, 殆, 至善’으로 총 7개이다. 이형상은 강령과 조목 간에도 선후·본말이 있다고 말했다.⁹⁹⁾ 준칙이자 귀결이 되는 ‘지선’을 가장 하단에 배치한 것을 보면, 상단이 ‘선’이고 하단이 ‘후’가 된다. 따라서 치, 국, 평, 덕, 재, 태, 지선의 순서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의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봐야 타당하다.

강령의 순서는 경서의 본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도설의 구조도 따른 것 같다. 전형적인 도설의 구조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앙에 배치한다든가, 주제나 핵심적인 단어는 크게 쓰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표현의 형식’을 말한다.

「혈구도」를 상·중·하로 나누면 상단은 치·국·평, 중단은 덕·재, 하단은 태·지선이다.

먼저 상단을 살펴보면 전10장 전문의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있게 되고, 나라가 있으면 재물이 있게 된다.’, ‘백성을 잃으면 나라를 잃고, 백성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다.’라는 내용에 따라 치[치민]¹⁰⁰⁾가 첫 번째 강령이 되고, 국이 두 번째 강령이 된다. 평은 혈구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1절과 2절 주석의 ‘위정자가 백성들에게 잘 혈구하면, 그 효과가 빠르게 퍼져 나라가 평해진다.’는 설을 따라서 치와 국 다음으로 평을 배치했다.

중단은 덕과 재이다. 유교 논리를 따르자면 덕이 첫 번째 강령이어야 한다. 그런데 중단부에 덕·재를 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앙에 배치하는 전형적인 도설의 구조를 따른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형상이 생각하는 평천하의 핵심적인 요소는 덕과 재이다. 덕은 유학에서

99)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38-139쪽, “자세히 나누어보면 팔조목은 저절로 서로 지·행이 되고, 돌이켜 요약해 보면 삼강령에는 각각 체·용이 있다.”, “사물의 이치가 이르지 않았는데 성의·정심을 먼저 하려 하고, 수신이 되지 않았는데 치국·평천하에 이르러자 하는 것은, 조목을 펼치려고 하면서 스스로 그 강령을 무너뜨리고, 가지를 복돋으려 하면서 스스로 그 뿌리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찌 본말을 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00) 본 「혈구도」에서 ‘치’는 연결된 조목들로 볼 때 ‘치민’을 뜻한다.

가장 중시하는 덕목이기에 어색하지 않지만, 재는 독특하다. 재를 핵심 요소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正祖이다. 정조는 재용을 민·국의 근본이자 치국의 요도라고 재해석했다.¹⁰¹⁾ 그러면서 재용의 기준은 임금의 호오인데, 여기에 만백성의 불행이 걸려 있다고 보았다.¹⁰²⁾ 孔子가 문물을 창시하여 安民을 이룬 복희씨를 堯舜 이전의 聖王으로 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관점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 이형상은 목민관으로 역임하는 동안 고된 민생을 수차례 목도하면서, 학문만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7절의 德本財末에 어긋나지 않도록, 치[치민], 국, 평, 덕의 아래에 재를 배치하였다.

태는 불능혈구에 대한 내용이라서 하단에 두었고, 귀결점이자 준칙인 지선이 가장 끝에 위치한다.

(1) 治

이형상이 「혈구도」에서 첫 번째 강령으로 뽑은 것은 治이다. 여기에 구성된 조목은 노노, 장장, 홀고이고 상단에는 부·모가 있다. 조목을 보면, 치는 ‘治民’을 뜻한다. 강령의 상단에 부·모를 두었고, 홀고는 강령의 밑에 두었다. 노인을 노인으로 대우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은 모두 위정자가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홀고’를 노노, 장장보다 아래이면서 중앙에 배치하였다. 3절은 ‘군주란 백성들의 호오를 같이 하기에 백성의 부모이다.’라는 내용이다. 자식의 호오를 같이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치민에서의 혈구지도이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치[치민]의 강령이 된다. 그런 의미로 ‘부’와 ‘모’를 치보다 높게 배치하였다.

(2) 國

101) 백민정, 「정조의 경학 이해와 정치의 문제」, 『한국문화』 Vol.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13-14쪽.

102) 백민정, 같은 책, 13쪽.

국은 두 번째 강령이다. 준명은 하늘의 큰 명을 뜻하고, ‘하늘의 명은 보존이 쉽지 않으니 백성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백성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¹⁰³⁾는 내용에서 나왔다. 대도는 군자의 큰 도라는 뜻으로 ‘군자는 충신으로 얻고 교태로 잃는다.’¹⁰⁴⁾는 구절에서 나왔다. 이후에 배치된 인·토, 산·벽, 득·실, 애·오, 거·퇴의 조목들로 미루어볼 때, 국은 ‘군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덕목들’이다. 준명과 대도는 조목들을 총칭하는 상위 개념의 단어이므로 조목들 중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다.

(3) 平

평은 ‘위정자가 백성들에게 잘 혈구하면 나라가 평해진다.’라는 1,2절의 주석에 따라 세 번째 강령이 된다. 그러므로 ‘상·하, 전·후, 좌·우’라는 조목은 ‘내가 싫었던 것을 상대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하·사방이 방정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4) 德

7절의 ‘德者本也 財者末也.’에서 덕과 재를 강령으로 정하고, 내용에 맞게 덕을 재보다 위에 두었다.心和性은 德의 좌우로 나란하게 있다. 이형상은 「명명덕도」의 설에서 ‘천명인 이치가 形氣속으로 떨어져 사람에게 있어서는 性이라 하고, 그 본성을 따라 행하면 道, 그 도를 마음으로만 얻은 것은 德’이라는 「朱子語類」의 말을 인용하였다.¹⁰⁵⁾ 性은 ‘남들과 호오를 반대로 하는 것을 일러 성품을 거스른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7절에 있고, 心은 덕스러운 신하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14절에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군자는 호오를 같이

103) 『大學』, “…峻命不易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104) 『大學』, “是故 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

105)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41쪽.

하여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따라 덕을 밝혀야 한다.’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심과 성은 덕의 강령이 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동급의 단어이다. 그래서 덕의 좌우로 나란히 배치했다. 그리고 조목으로 선·악[선하면 얻고 불선하면 잃는다.¹⁰⁶⁾]과 충·신[충과 신으로 얻는다.¹⁰⁷⁾]을 연결했으며, 덕스러운 모양새를 뜻하는 혁혁과 휴휴로 마무리하였다.

(5) 財

재의 조목은 ‘生財有大道’¹⁰⁸⁾의 내용인 생·식, 위·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취·산, 발신, 발재, 부고유재, 부혹취렴, 부혹우양, 부찰계돈으로 이어진다. 재와 용인의 조목들이다. 단, 용인 중에서도 재물에 관련된 용인으로만 구성했다.

(6) 殆

태는 不能絜矩를 설명하는 부분이기에 하단에 배치했다. 혈구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들을 조목으로 정하였다. 불능혈구를 하나의 강령으로 만들어 도설에 포함시킨 것은 혈구를 강조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저자의 뜻으로 해석된다.

(7) 至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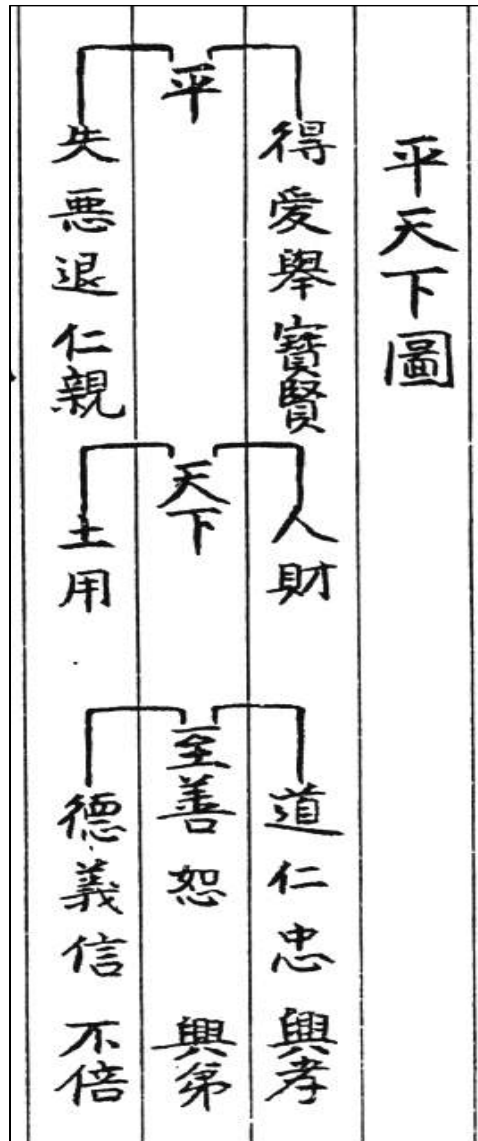
‘의’와 ‘이’는 태가 아니라 지선에 관계된 핵심 단어이다. 이형상의 「평천하도」는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大學講義』에 있는 간략한 형식의 「평천하

106) 『大學章句』, 「傳十章」, 11節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

107) 『大學章句』, 「傳十章」, 18節 “是故 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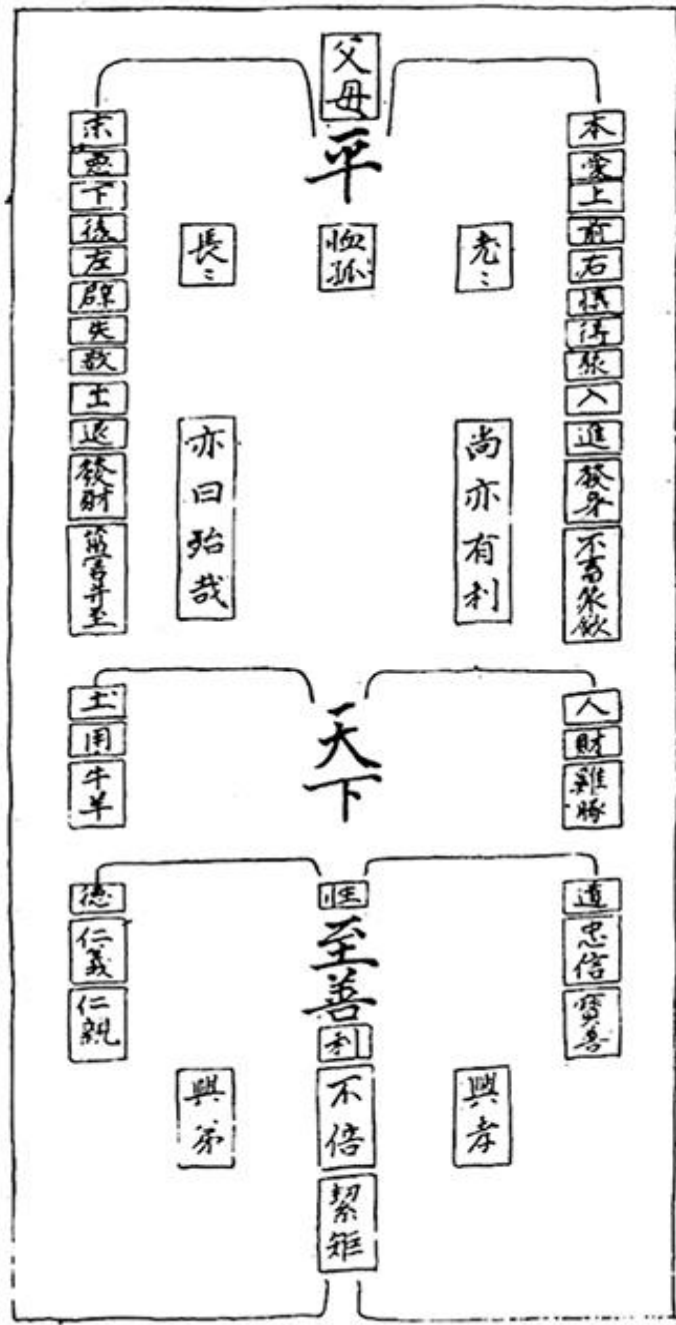
108) 『大學章句』, 「傳十章」, 19節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도」이고, 다른 하나는 『大學訓蒙』의 「평천하도」이다. 아래의 도상을 보면 둘 다 至善 부분에 ‘의’와 ‘이’가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혈구도」에서도 ‘의’와 ‘이’가 지선에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5〉 『대학강의』의 「평천하도」

平天下圖 卷之



〈그림 4-6〉 『대학훈몽』의 「평천하도」

‘의’와 ‘이’는 22절과 23절의 ‘나라는 이익으로써 이익 삼지 않고, 의로써 이익 삼는다.’¹⁰⁹⁾라는 내용의 핵심 단어이다. 지선에 머무르는 것은 ‘의’를 이익으로 삼는 혈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와 이는 덕에서의 심·성과 같은 역할과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어들을 큰 사각 모양으로 묶은 후, 가장 하단의 중앙에 仁을 써서 요결됨을 나타냈다. ‘이 모든 혈구는 인이다.’라고 해석된다.

3) 종합 분석

이상의 이형상 「혈구도」를 총 정리하여 아래의 표로 요약하였다.

주제어	요지	핵심 단어
치	治民에 있어서의 혈구	부, 모, 홀고, 노노, 장장
국	治國에 있어서의 혈구	준명, 대도, 인, 토, 신, 벽, 득, 실, 애, 오, 거, 퇴
평	혈구의 결과로서의 쭉	상, 하, 전, 후, 좌, 우
덕	군자의 덕에 관한 혈구	선, 악, 충, 신, 혁혁, 휴휴
재	財에 있어서의 혈구	생, 식, 위, 용, 취, 산, 발신, 발재, 부고유재, 부혹취렴, 부혹우양, 부찰계돈
태	殆에 있어서의 불능혈구	외분, 내말, 쟁탈, 모질, 패입, 패출, 호오, 오호, 교태, 재해
지선	至善에 이르는 義와 利	의, 이
그 외	요지	핵심 단어
요결 단어	혈구는 仁이다.	인

<표 4> 이형상의 「혈구도」 요지 및 핵심 단어 정리

109) 『大學』, 「傳十章」, “…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위의 표를 보면 ‘덕’의 조목은 위정자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고, ‘치, 국, 평, 재, 태’의 조목은 주로 외현적이고 실천적인 것들로 구성돼 있다. 치의 노는 위정자의 행동이고, 국의 신·벽·득·실·거·퇴는 외현적이고 실천에 관련한 것들이다. 재와 태의 조목과 혈구의 결과인 평도 이와 같다. 특히, 실천에 관한 조목들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혈구지도에서 실천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형상의 혈구지도에 대한 관점이라고도 해석된다. 현실적이고 실천을 중시하는 성향은 실학의 성격과도 비슷하다.

이형상이 혈구지도에서 실천적인 면을 중시하게 된 배경으로 세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시의 격화된 당쟁이고, 둘째는 직접 목도한 민생의 현실, 셋째는 이형상의 理氣觀이다.

이형상은 「혈구도」의 설명에서 虞叔과 虞公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 책망하였기에 불화를 빚은 것’¹¹⁰⁾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혈구지도와 「치국평천하」장은 위정자의 시점으로 쓰여 있다. 위정자가 백성을 상대로 혈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백성과 신하의 입장에서의 혈구지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서로 혈구하거나 서로 혈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헤아림’을 언급한 것은 당시의 심각했던 당쟁을 비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외직 당시 목격한 유량민들의 기록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이들이 떠돌이 걸식자가 되어 산과 구렁에 즐비하게 쓰러져 있고, 길에서 굶어 죽으며,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목을 매서 스스로 죽는 이도 있다.’¹¹¹⁾라는 내용이 나온다. 학식이 높고 인성을 함양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궁행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현실의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험들도 혈구지도에서 실천적 측면을 중시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110)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사, 2012, 179쪽.

111) 이정옥, 『병와 이형상』, 글누림, 2014, 66-68쪽.

실천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배경은 저자의 이기관이다. 이형상의 이기관은 주희의 이기관과 다른 점이 있다. 주희는 所以然, 所當然을 통해 기에 선행하는 이를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형상은 이기를 상호 공존하고 의지하는 보완관계로 설정하고, 이것을 官爵과 그릇에 비유하였다.¹¹²⁾ ‘이’는 관작이고, 비어있는 그릇이다. 여기에 官員이 들어가 활동을 해야 비로소 관작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어 유의미해진다. 마찬가지로 ‘기’는 관원이자 이를 담는 그릇이다. 관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관작을 얻어야만 존재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¹¹³⁾ 이렇게 이와 기는 서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런 이기관이 인간관에 적용되면, 인간에게 내재하는 天命은 理이고 性이다. 그러나 性を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관원이 없는 관작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천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성을 실현시킬 때, 비로소 인간이란 존재는 유의미해진다. 따라서 본성을 발현하는 수단인 실천궁행은 이형상에게 특별한 가치로서 중시될 수밖에 없다.

4. 소결

「혈구도」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형상은 혈구지도에서 실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덕과 지선이라는 강령을 배치하여 명덕의 중요성을 잃지 않았다. 7개의 강령과 조목들은 나라의 근본인 愛民으로부터 실천으로 평천하를 이루고, 나아가 지선에 머무르는 『대학』의 본 뜻까지 나타낸다.

이형상이 평천하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한 것은 덕과 재로서, 성리학자의 면모와 실학적인 성향이 함께 드러난다.

이형상 「혈구도」의 구성에서 몇 가지 독특한 방식이 나타난다. 한 개의 구

112) 이형상·박문호·김용걸 등, 『韓國思想家의 새로운 發見 : 瓶窩 李衡祥·壺山 朴文鎬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4쪽.

113) 이형상·박문호·김용걸 등, 같은 곳.

절에서 여러 개의 조목을 추출하여 서로 다른 강령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도설에서 한 구절을 중복으로 배치한 것과 같다. 역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구절도 있었다. 그래서 전10장의 논리 구조나 체계를 드러내는 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2절, 12절, 13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을 활용했으므로 핵심 원리나 요지를 표상하는 도설도 아니다. 이 같은 구조와 방식은 일반적인 도설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목을 강령의 강령으로 활용하고, 구절의 순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배치한 점도 매우 독특하다.

특히 한 구절에서 여러 단어를 추출한 것은 구절을 쪼개서 활용했다는 뜻이다.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쪼갠다면, 경서를 이해한 자신만의 관점을 나타내기엔 훨씬 유리하다. 또, 해당 구절의 내용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혈구를 표현할 수 있다. 이형상은 치, 국, 평, 덕, 재, 태, 지선이라는 강령을 정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전10장을 호오, 의리, 재용으로 파악한 것과는 매우 다른 관점의 해석이다. 또한, 「평천하도」와 「혈구도」를 분리시켰다. 「혈구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7개의 강령을 설정하여 해당별로 혈구를 표기한 것은 혈구지도를 보다 자세히 드러내려는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또, 실천덕목 위주로 구성된 점과 이형상의 실천 중시 성향을 적용하면, 자세히 드러내어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본래 전10장은 현실 정치에 관한 부분이므로 혈구지도는 실천에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관점으로 경서의 본지를 더 잘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조선 유학사의 특징인 도설 중에서 「혈구도」에 대한 연구이다. 많은 경학 도설이 제작된 것에 비해 「혈구도」는 그 수가 많지 않음을 발견하여, 도설의 제작 동기 및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 유학 도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착안해서 도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7-18세기 초반의 조선은 전반적으로 매우 혼란했다.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신응태와 이형상의 「혈구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응태와 이형상이 「혈구도」를 작성한 동기에는 당시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신응태는 졸하는년까지 사화 및 당쟁에 관한 저서를 집필했고, 이형상은 「혈구도」의 설명에서 ‘서로의 헤아림’이라는 견해를 적었기 때문이다. 이형상은 「평천하도」와 「혈구도」를 모두 그린 유일한 인물이다. 목민관으로서 목도한 민생은 혈구지도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켰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학자의 「혈구도」에는 차이점이 있다. 신응태는 도설의 중단에 ‘혈구의 의미’와 ‘평천하의 원리’를 배치했다. 그리고 평천하의 요도는 혈구이고, 혈구의 핵심 원리는 ‘정심’이라는 자신의 사상을 나타냈다. 반면, 이형상은 중단을 덕과 재로 구성하여 덕성을 바탕으로 한 경세를 나타냈다. 또, 신응태의 도설이 혈구지도와 전10장의 기본·핵심·전체의 요지로 구성된 반면, 이형상은 주로 실천덕목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이형상이 실천적인 측면을 중시한 배경에는 그의 이기관이 존재한다.

이상으로 두 학자의 혈구지도에 관한 사상과 사회 현실에 대한 관점의 同異를 살펴보았다.

신응태와 이형상의 「혈구도」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두 학자의 사상을 입체적이면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저자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텍스트와 구별되는 도설의 기능 중 하나이다. 이런 기능으로 인해 조선 유학자들에게 활용된 도설은, 학문의 발달과 교류의 촉진제로

서 조선 고유의 성리학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제목만으로도 도설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었고, 선 하나를 긋는 것도, 글자의 배치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었다. 이토록 신중한 고민 끝에 완성된 도설은 저자의 철학적 산물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연구 과제를 발견했다. 이형상의 저서에 정복심의 『사서장도』에 관한 소개와 『사서장도』의 도설을 따라 그린 자료가 몇 편 실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신응태의 도설에서 『사서장도』의 도설과 비슷한 부분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신응태 도설에서 나타난 ‘여백’은 동양화에서 사용되는 기법인데, 경학 도설에서 회화의 표현 기법을 어디까지 적용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준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여러 도설에서 정복심의 『사서장도』의 영향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사서장도』 도설에 대한 연구는 ‘조선 유학사’ 연구로 연결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본고를 마친다. 부족한 것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후속 연구를 기대하면서 조선시대에 제작된 「혈구도설」을 부록으로 첨부해둔다.

□ 참고문헌

1. 원전

『近思錄』

『論語』

『大學』

『大學章句』

『大學章句大全』

『孟子』

『書經』

『說文解字』

『性理大全』

『詩經』

『心經』

『易經』

『禮記』

『朱文公文集』

『朱書節要』

『朱子語類』

『中庸』

權 近, 『入學圖說』

權 炳, 『約齋集』

金謹行, 『庸齋集』

金壽民, 『明隱稿』

金元行, 『溪湖集』

朴慶家, 『鶴陽集』

白鳳來, 『四書通理』
 _____, 『三經通義』
 申應泰, 『四書提要圖說』
 _____, 『龍崖文集』
 李 穡, 『牧隱詩藁』 『心經』
 李泰壽, 『尊周錄』 『止谷遺稿』
 李衡祥, 『瓶窩全書』
 林 泳, 『滄溪集』 9
 程復心, 『四書章圖』
 _____, 『四書章圖櫟栝總要』
 曹好益, 『芝山集』
 眞德秀, 『心經』
 韓元震, 『南塘集』

2. 단행본

-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양장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박규홍·강창언·구지현 등, 『瓶窩 李衡祥의 학문과 사상』, 경북대 퇴계연구소, 2021.
 성백효 역주, 『大學·中庸集注』 개정증보판, 전통문화연구회, 2016.
 유교사전편찬위원회, 『儒教大事典』, 박영사, 1990.
 유권종, 『한국 유교 圖像의 역사』, 집문당, 2020.
 이정옥, 『병와 이형상』, 글누림, 2014.
 이형상·박문호·김용걸 등, 『韓國思想家の 새로운 發見 : 瓶窩 李衡祥·壺山 朴文鎬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정복심 저, 전병욱 역, 『사서장도은괄총요』, 세창출판사, 2018.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도설』, 보고서, 2013.
_____,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보고서, 2020.
한국사상연구회,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예문서원, 2000.

3. 논문

1) 학위논문

문창호, 「九龍齋 白鳳來의 『四書通理』 研究」,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박민철, 「瓶窩 李衡祥의 著述과 家藏 文獻의 書誌的 分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조선아, 「'絜矩之道'와 '共感'을 통한 현대사회의 소통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2020.
조희정, 「『대학(大學)』 '혈구지도(絜矩之道)'의 해석 문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2014.
추영원, 「鶴陽 朴慶家の 學問性向과 詩世界」,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11.

2) 일반논문

구춘수, 「권근의 입학도설 고찰」, 『論文集』 Vol.28, 空軍士官學校, 1990.
김용남, 「용애 신응태의 삶과 시세계」, 『충북학』 제21집, 충북학연구소, 2019.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Vol.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1.
김용재, 「毅堂 朴世和 선생의 儒學思想」, 『퇴계학논집』 Vol.26, 영남퇴계학연구원, 2020,

- 김학권, 「李衡祥의 日常的 道德規範으로서의 易學」, 『공자학』 Vol.27, 한국 공자학회, 2014.
- 김지훈·최재목, 「임은 정복심의 『사서장도은괄총요』에 대한 도상학적 접근」, 『연민학지』 Vol.37, 연민학회, 2022.
-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繫矩)’ 함의 연변 고찰—정현(鄭玄)과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Vol.107, 한국중국어문학회, 2021.
- 박지현, 「성호 이익의 경학과 경세론 - 『대학』 제10장 ‘혈구지도’를 중심으로 -」, 『장서각』 Vol.47,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 백민정, 「정조의 경학 이해와 정치의 문제」, 『한국문화』 Vol.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 서경요, 「韓國 性理學의 圖說學的 理解」, 『유교사상문화연구』 Vol.24, 한국유교학회, 2005.
- 오세권, 「한국화의 ‘몽타주’ 표현에서 나타나는 ‘여백’ 연구 - 화면 분할의 ‘몽타주’ 표현을 중심으로 -」, 『조형예술학연구』 Vol.6, 한국조형예술학회 2004.
- 유권종, 「철학부 : 중국 유학의 도설과 의의」, 『중국학보』 Vol.53, 한국중국학회.
- 이남옥, 「제주 목사 이형상의 풍속 교화와 폐정 개혁 정책」, 『국학연구』 Vol.47, 한국국학진흥원.
- 전병욱, 「혈구지도(繫矩之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東洋哲學研究』 Vol.83, 동양철학연구회, 2015.
- 최재남,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Vol.13, 한국한시학회, 2009.
- 최재목, 「우주의 원리, 인간의 도리: 四書에 대하여」, 『신동아』, 동아일보사, 2003.01.22, (shindonga.donga.com/3/all/13/102155/1).
- 최재목, 「조선에서 주자의 大學章句에 대한 한 도전 - 노수신의 「大學集錄」을 중심으로-」, 『陽明學』 Vol.27, 한국양명학회, 2010.
-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泰東古典研究』 Vol.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4. 전자자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museum.dankook.ac.kr/web/museum)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rfo.co.kr/)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hq.vacusoft.co.kr:35000/rsh/?rshID=AKS-2012-EBZ-2101)

한국경학자료시스템: (koco.skku.edu/)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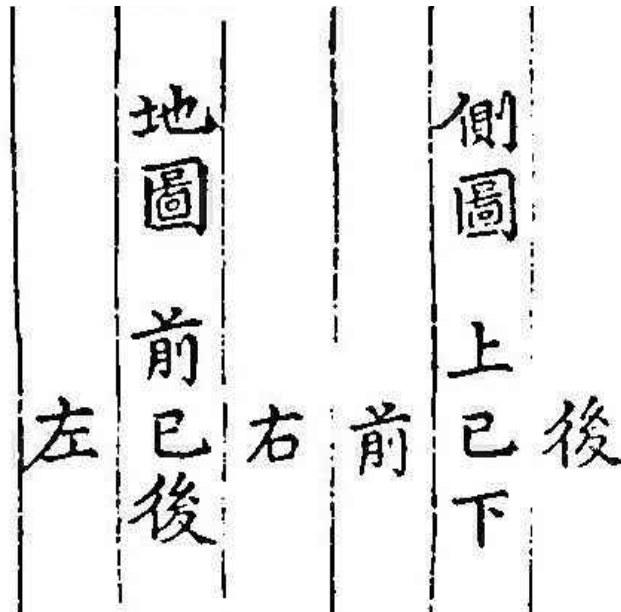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부 록

조선시대에 제작된 「혈구도설」

1. 조호익 (1545-1609년)

자는 士友, 호는 芝山이며 본관은 창녕이다. 이항의 문인이다. 32세 때 군 부정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평안도 강동현에서 17년간 유배지 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학문에 정진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관서 지방에 학풍을 진작시켰다.¹¹⁴⁾ 임진왜란 이후 공을 세워 안주목사, 대구부사, 성천부사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지산집』, 『心經質疑考誤』, 『論爲學之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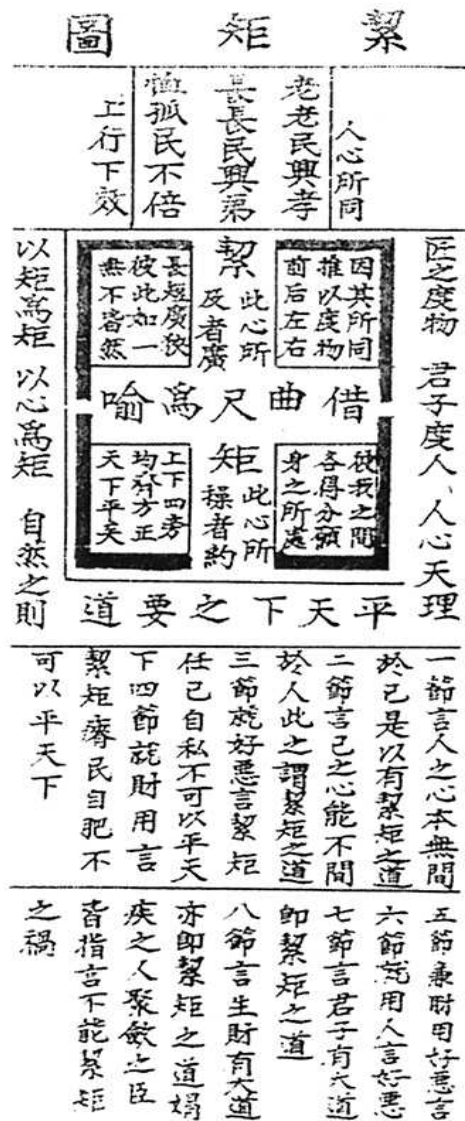


〈부록 1〉 조호익의 「絜矩圖」

1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769>), 2023.02.15,

2. 신응태 (1643-17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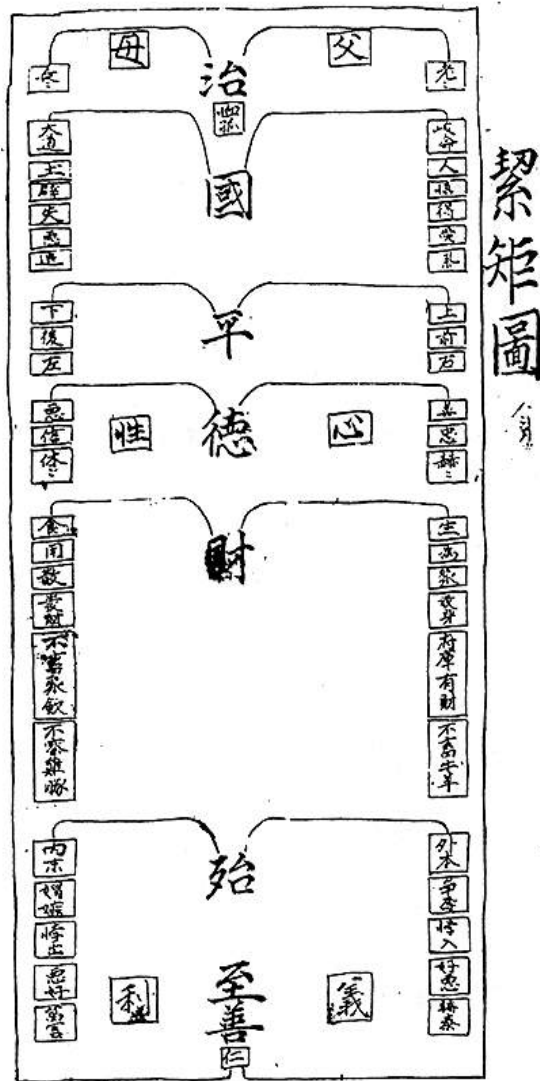
초명은 응개, 자는 길래, 호는 용애이며 본관은 아주이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생했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저술 및 후학 양성으로 일평생을 보냈다. 저서로는 『용애문집』 4권 1책과 『사서제요도설』이 있다.



〈부록 2〉 신응태의 「絜矩圖」

3. 이형상 (1653-17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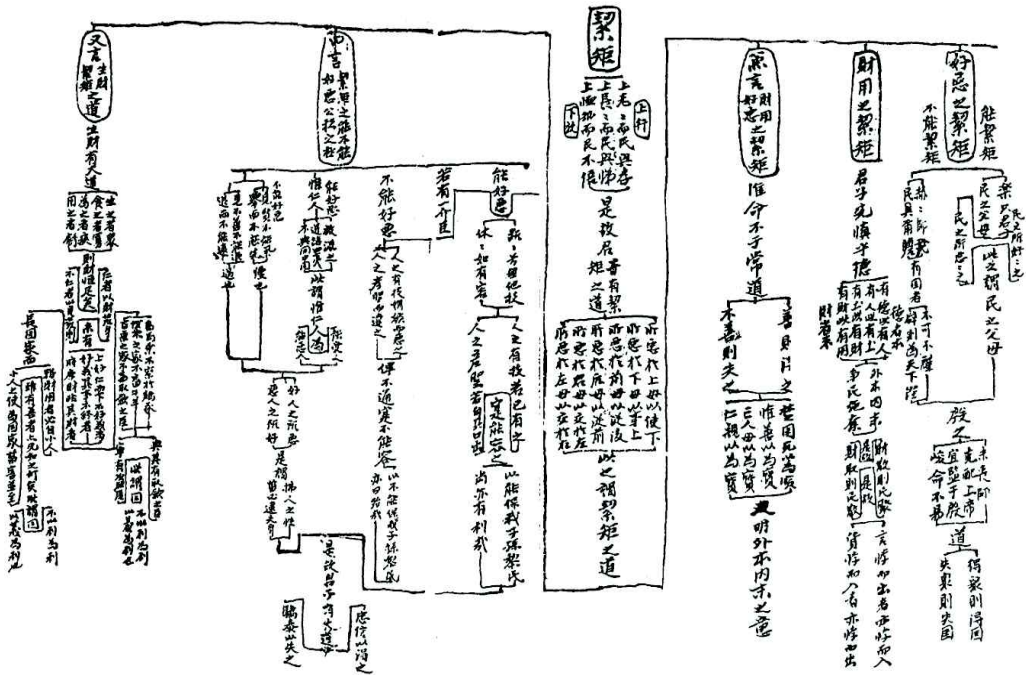
자는 중옥, 호는 병와·순옹, 본관은 전주이다. 효녕대군의 10대손이다. 경주 부윤, 제주목사, 영광군수 등 주로 외직을 역임했으며 문·무 모두 능했다. 손자가 간행한 『병와집』 18권 외에도 『둔서록』, 『악학편고』, 『악학습령』, 『선후천』 등이 있다.



〈부록 3〉 이형상의 「繫矩圖」

4. 이태수 (1799-1857년)

자는 士亨, 호는 止谷, 본관은 전주이다. 玄石 朴世采와 明齋 尹拯의 문인으로 소론 계열로 추정된다.¹¹⁵⁾ 세자익위사 세마, 성현도 찰방, 왕자사부, 세자시강원 자의 등에 임명되었으나 전부 나아가지 않고, 파주에 은거하며 학문 및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생전에 완성하지 못한 것을 그의 문인 李壽頤가 편술한 『尊周錄』 9권 5책과 불분권 4책의 『止谷遺稿』¹¹⁶⁾ 등이 있다.



〈부록 4〉 이태수의 「繫矩圖」

115)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180쪽.

1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4074>), 2023.02.

5. 한원진 (1682-1751년)

자는 德昭, 호는 南塘, 본관은 청주로 권상하의 문인이다. 성리학설에 정통하였다. 李珣-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여 氣發理乘一途說의 입장을 고수했다. 湖洛論爭에서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로 江門八學士 중 한 사람이다.¹¹⁷⁾ 『南塘集』, 『朱子言論同異攷』 『退溪集疏釋』 『王陽明集辨』등을 저술하였으나 『經義記聞錄』과 『주자언론동이고』를 제외한 나머지 문집의 대부분이 이항의 학설에 위배되는 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사 金正흠에 의해 방화로 소실되었다.¹¹⁸⁾

1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61868), 2023.06.15.

118) 같은 사이트, 2023년 6월 15일 접속.



〈부록 5〉 한원진의 「南塘傳十章圖」

6. 김근행 (1712-1782년)

자는 仲甫, 호는 庸齋, 본관은 안동이다. 한양에 살았으며 姜奎煥의 문인인데 권상하·한원진·沈潮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¹¹⁹⁾ 송시열→권상하→한원진→심조·강규환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이어받았고, 부친의 스승인 金昌協·金昌翁으로부터 학문적 영향을 받았으며, 김창협(金昌協)의 손자인 김원행(金元行)과도 친분이 두터웠다.¹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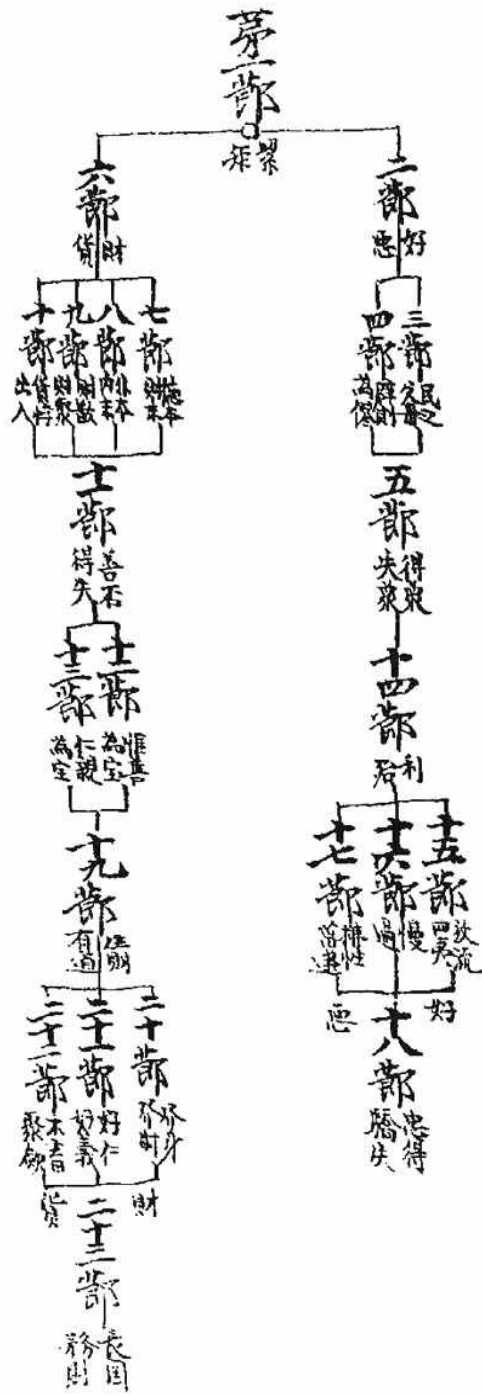
관직으로는 태자익위사세마, 김포군수, 인천부사 등을 역임했다.

역학에 밝아 『周易』, 『易學啓蒙』, 『葦三百』, 『太極圖』 등을 주해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圖示하고 설명을 첨가했다.¹²¹⁾ 『庸齋文集』 15권 15책이 있다.

119)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258쪽.

120) 최석기·강현진, 같은 곳.

1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8809), 2023.0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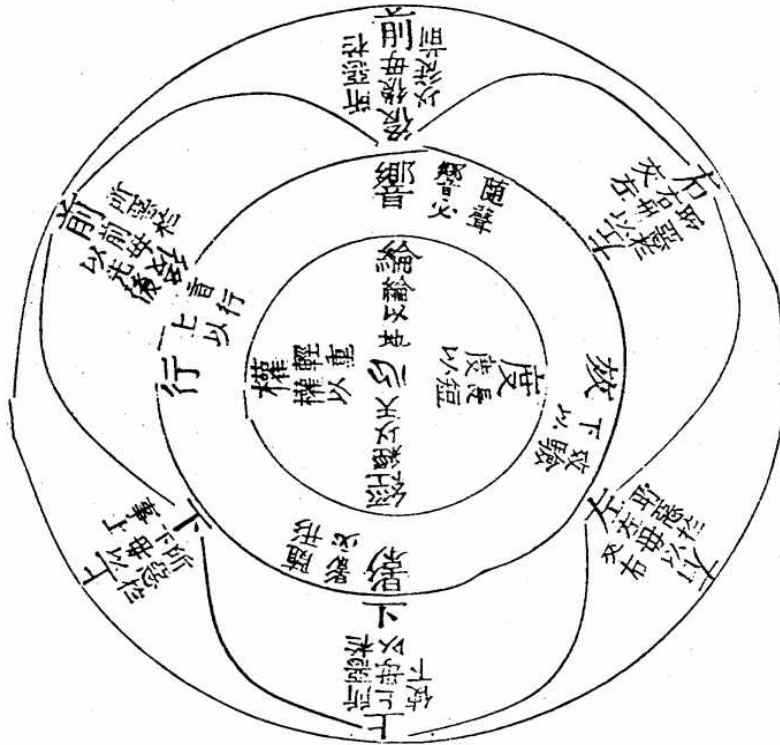


〈부록 6〉 김근행의 「傳十章圖」

7. 백봉래 (1717-1799년)

자는 來伯, 호는 구룡재. 본관은 수원이다. 고성 거류산 아래 가리동에서 출생하여 7세에 許侃에게 배우고, 13세 때에는 靈山 辛處士에게 배웠으며 15세 부터는 독학하였다¹²²⁾ 24세 무렵부터 경학으로 인근에 이름이 알려져 구룡재라는 정사를 짓고 강학하며 학문에 몰두했다.¹²³⁾ 51세에 향시에 급제하고 회시에 낙방한 이후로 일생을 강학과 학문 및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¹²⁴⁾ 저서로는 『九龍齋文集』, 『四書通理』, 『三經通義』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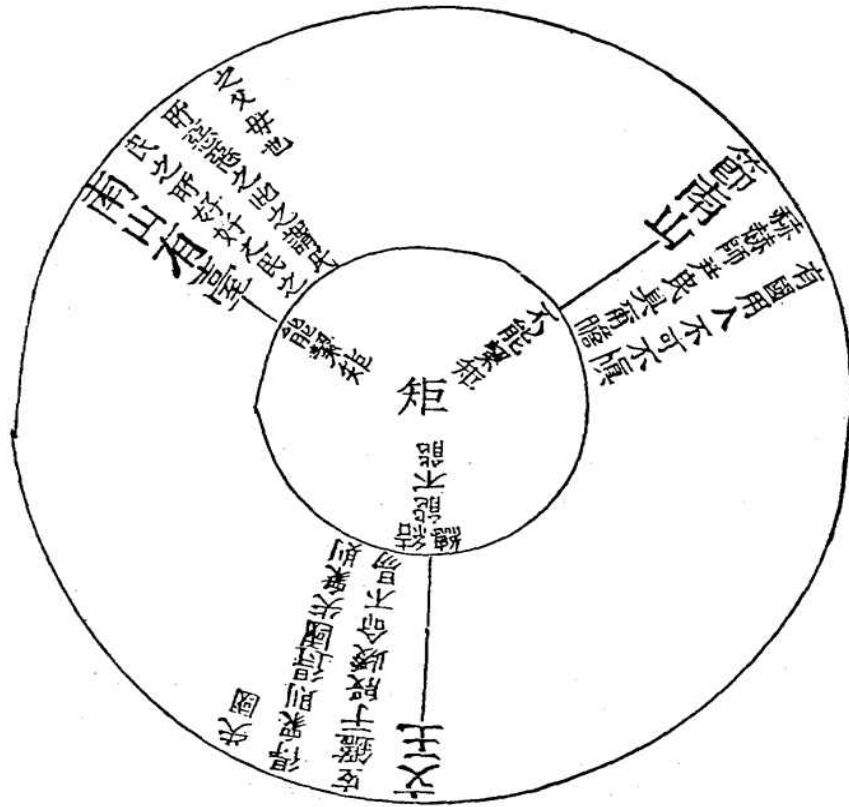
圖 之 矩 絜 于 君



〈부록 7〉 백봉래의 「君子絜矩之圖」

122) 문창호, 「九龍齋 白鳳來의 『四書通理』 研究」, 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9, 5쪽.
 123) 문창호, 같은 곳.
 124) 문창호, 같은 책,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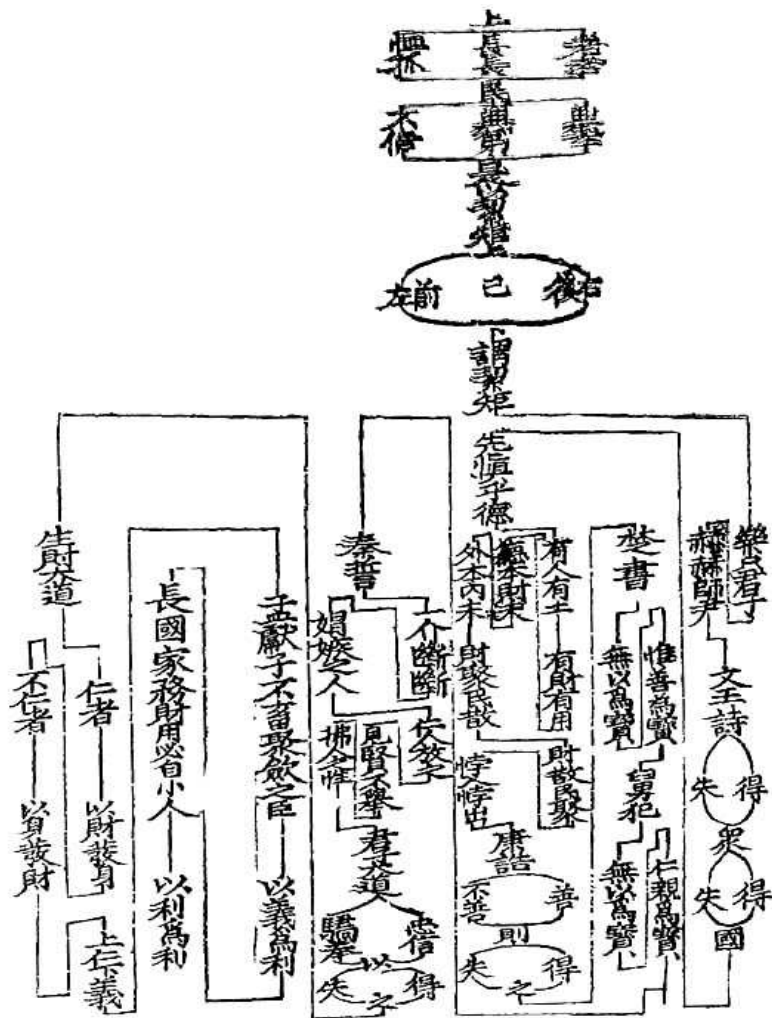
三引詩申明絜矩能不能之圖



〈부록 8〉 백봉래의 「三引詩申明絜矩能不能之圖」

8. 권병 (1723-2772년)

자는 景晦, 호는 約齋, 본관은 안동이다. 경상도 안동 금계리에서 출생했으며, 柳升鉉과 權榘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李象靖을 從遊하였다.¹²⁵⁾ 교유한 학자로는 李宗洙, 金樂行, 柳長源, 崔興遠, 尹光紹 등이 있으며, 『約齋集』 9권 4책을 저술하였다.¹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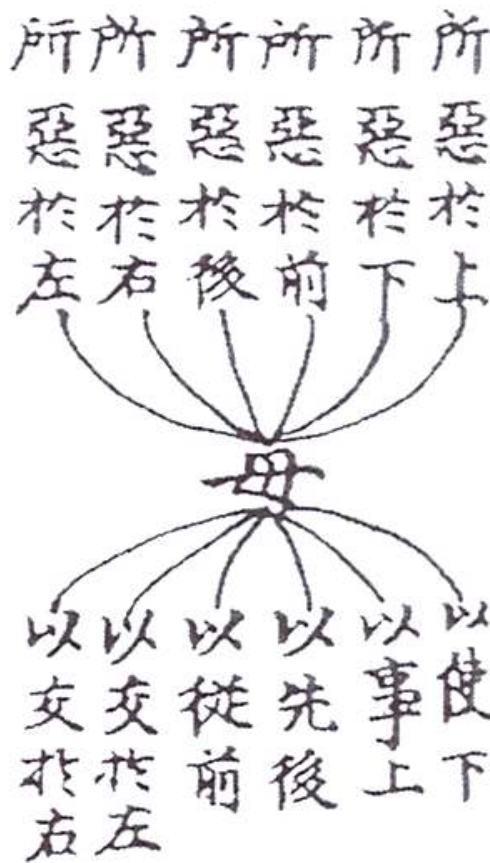
〈부록 9〉 권병의 「大學傳十章胡云峯分節辨」

125)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333쪽.

126) 최석기·강현진, 같은 곳.

9. 김수민 (1734-1811년)

자는 濟翁, 호는 明隱, 본관은 부안이다.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金元行의 문인이다. 청에 의해 명이 멸망하자, 명나라 遺民이라 자처하며 초야에서 평생 학문에 몰두하였다. 학문적으로 주희와 송시열을 흠모했으며 인물성동이논쟁에서 낙론을 지지하면서도 절충적인 태도를 취했다.¹²⁷⁾ 저술로는 『箕東樂府』, 『奈城誌』, 『明隱稿』가 있다.



〈부록 10〉 김수민의 「繫矩圖」

127)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사, 2012, 338쪽.

10. 박경가 (1779-1841년)

자는 南吉, 호는 鶴陽, 본관은 고령이다. 경상도 창원 회연리에서 출생했으며 부친이 같은 고을 龍潭의 산수를 좋아하여 鶴洞(현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하거리)으로 이주하였다.¹²⁸⁾ 어려서는 부친 松泉公에게 수학하고, 26세 때 鄭宗魯를 찾아가 수학했으며, 1810년 진사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에서 유학하였다.¹²⁹⁾ 1816년, 고향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하거리에 鶴陰書堂을 세우고 학문과 저술 활동에 전념하며 후학 양성으로 남은 생을 보냈다. 박경가의 아들 朴鍾源과 재종손 朴英鶴 등이 박경가의 시와 산문을 엮어 1901년에 『鶴陽集』 12권 6책을 간행하였다.¹³⁰⁾

128) 추영원, 「鶴陽 朴慶家の 學問性向과 詩世界」,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11.

129)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2012, 393쪽.

1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60889), 2023.06.15.



〈부록 11〉 박경가의 「傳十章絜矩圖」

M. A. Thesis

**A Study on Hyeolgudo(絜矩圖)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of Joseon Dynasty:
Focusing on Sin Eung-tae(申應泰), Lee
Hyeong-sang(李衡祥)**

Son, Yeon-Ah

Dep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Yo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Jae-Mok)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Doseol(圖說) drawn by Confuci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朝鮮時代)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study was centered on the Hyeolgudo(絜矩圖) drawn by Shin Eung-tae(申應泰) and Lee Hyung-sang(李衡祥). The Hyeolgudo is a drawing that expresses one's thoughts on the Hyeolgujido(絜矩之道) in a schematic form, and explanations on the schematic form are added or omitted.

The Hyeolgujido was a subject tha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from Confuci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But why did they draw the Hyeolgudo? The author analyzed the Hyeolgudo of Shin Eung-tae and Lee Hyung-sang in order to know the purpose, content, value and meaning of the Doseol. The drawings of the two scholars were analyzed mainly for their structure, and their lives, philosophies, and academic views were used as supplementary material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Hyeolgudo, the background of drawing the Hyeolgudo was related to the social reality of the time and the thoughts of the two scholars on the Hyeolgujido. Shin Eung-tae thought that the core of the Hyeolgujido was 'right mind', while Lee Hyung-sang considered the leader's virtue and the people's economic stability important, which was expressed in the Hyeolgudo. Shin Eung-tae drew while emphasizing the core principles of the Hyeolgujido, and Lee Hyung-sang focused on the practice of the Hyeolgujido. Through the Hyeolgudo, it was possible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ews of the two scholars on the society at the time and the Hyeolgujido.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oseol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the thoughts of the person who drew it.

The Doseol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the Doseol will be actively conducted to clarify the thoughts of Joseon scholars, and further expand to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oseol between China and Joseon.